碩士學位論文

飜 譯 硏 究 Ⅲ

-『飜譯硏究Ⅲ』韓國語 飜譯 論文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中 科

吳 惠 允

2005年 7月

飜 譯 硏 究 Ⅲ

-『飜譯硏究Ⅲ』韓國語 飜譯 論文-

指導敎授 宋 呟 宣

吳 惠 允

이 論文을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吳惠允의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洪 善

審 査 委 員 宋 呟 宣

審 査 委 員 金 中 燮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5年 7月

目 次

Ⅰ. 백화문과 대화 …… 1

Ⅱ. 백화문의 리듬과 음조 …… 6

Ⅲ. 오류 …… 9

1. 명사의 동사화 …… 10
2. ‘一種’, ‘一個’, ‘一項’ …… 17
3.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 …… 22
4. ‘前者’, ‘後者’ …… 23
5. 번역문체 …… 25
6. ‘數以……計’ …… 27
7. ‘存在’ …… 27
8. ‘試圖’ …… 28
9. ‘帶來’ …… 29
10. 조심해야 할 ‘性’ …… 29
11. ‘取’ …… 31
12. 불필요한 단어 …… 32
13. ‘讓我們’ …… 33
14. 졸역의 영향 …… 33
15. 졸역의 효능 …… 34
16. 원문 첨부 …… 34
17. 생략하기 …… 3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8. 좋고 나쁜 영문 판별하기 …… 35
19. ‘證明’, ‘顯示’ …… 36
20. ‘中間’, ‘在……上’ …… 37
21. ‘因之’ …… 38
22. ‘足够’ …… 39
23. ‘通過’ …… 40
24. 기타 …… 40

Ⅳ. **중국의 중국어** …… 45
1. ‘to me’ 등등 …… 48
2. ‘更多’, ‘更好’ …… 50
3. 기존의 중국어 …… 52
4. 최고급(Superlative Degree) …… 54
5. 명사의 응용 …… 55
6. 대명사 …… 57
7. 형용사 …… 58
8. 문장 끊기 …… 59
9. 문장유형 바꾸기 …… 60
10. 나이 넣기 …… 61
11. 기타 …… 61

Ⅴ. **문장유형** …… 67

참고문헌 …… 7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역 자 서 언

원문 『飜譯硏究』은 주로 영중(英中)번역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들을 집어내고, 다시 중국어 습관에 맞는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고 올바른 중국어 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는 본문에서 이런 말을 했다.

> **필자가 현재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들도 20년 후에는 아마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飜譯硏究』을 집필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 필자가 나쁘다고 지적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들을 찾아 볼 수 있다.

> '年輕人(젊은이)' 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다. 이 단어는 '青年(청년)' 이나 '年輕的人(젊은 사람)' 으로 고쳐야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先生們(신사들)' 은 중국어 습관상 '諸位先生(신사 여러분)' 으로 고쳐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年輕人' 이나 '先生們'은 모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표현들이 필자가 『飜譯硏究』을 집필할 당시에는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예문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하고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중국어가 영어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해 왔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자는 이 논문이 현대중국어 변천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번 역 방 향

1. 번호 매기기

사실 원문 『飜譯硏究』에는 번호가 없지만 독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큰제목은 로마자 'ⅠⅡⅢ……' 순으로, 소제목은 숫자 '123……' 순으로 매겼다.

2. 번체자 사용

본 논문은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한자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원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국인에게 익숙한 번체자를 사용했다.

3. 고유명사 표기 방법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인 경우 '한자독음(한자)' 로 표기했다.

예) 호적(胡適)·전현동(钱玄同)·유반농(刘半农)·부사년(傅斯年)
강소성(江苏省)의 진강(鎭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역주 달기

* 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역주를 달아 설명했다.

예) 변문(骈文), 백탑(百搭),해금(海禁),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 다른 번역가의 해석을 참고하여 번역했을 때도 역주를 달아 해석의 출처를 밝혔다.

예) 역주: 위 홍루몽의 번역은 안의운/김광렬이 옮긴 『홍루몽 2』 p.305 ~ p.307 부분을 참고하여 옮긴 것임.

5. 부호 달기

*예문은 작은따옴표 '…' 를, 해석은 괄호(…)를 사용해서 구분했다.

*부득이하게 괄호가 겹친 경우는 [(〈〉)] 순으로 표기했다

Ⅰ. 백화문과 대화

호적(胡適)이 최초로 백화를 사용해서 글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전국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백화로 글을 쓸 것을 제창한 사람은 바로 호적이었다. 이 책은 중국 문학사도, 백화 문학사도 아니며, 또한 고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문장 같지도 않고 중국어 같지도 않은 글자, 단어, 말들을 만들어 사용할지언정, 일부 좋은 구어체 표현을 기피하거나 혹은 경시해 왔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앞서 작문과 번역은 모두 반드시 문언(文言)의 좋은 표현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록 백화문 연구가 항일전쟁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 오긴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어쩌면 오히려 조금 퇴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년 전 호적(胡適)・전현동(錢玄同)・유반농(劉半農)・부사년(傅斯年)은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지금까지도 가치를 인정받는 토론문을 저술하였다(‘중국신문학대계(中國新文學大系)’ 제1집『이론건설집(建設理論集)』참조). 현재 중국어 문법연구가 다소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백화문을 사용하는 수준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대화 내용을 쓴 문장은 여전히 엉망이다.

‘號’자는 구어체에서 ‘日’ 대신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글로 쓸 때는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말 할 때는 ‘我上個月六號來的。(저 지난달 6일에 왔어요.)’라고 하면서도, 펜만 잡았다 하면 ‘六日’라고 쓴다. 뜻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좀 어색하다. 그리고 글을 쓸 때 ‘……一塊錢(1원)’이라고 쓰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수표를 발급할 때도 쓸 때는 ‘五十元’이라고 쓰면서도, 말로는 항상 ‘五十塊錢’이라고 한다. 이처럼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아무도 ‘我花了五十元買了一部書。(저 50원으로 책 한 권 샀어요.)’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

째서 정작 글로 쓸 때는 '五十塊錢(50원)'을 '五十元'이라고 바꿔 쓰는 것일까? '鐘頭(시간)' 역시 문장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보통 점잖은 표현인 '小時'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我走了兩小時才到。(나는 두 시간을 걸어서야 도착했다.)', 이 문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할 때는 보통 '鐘頭'를 더 많이 사용한다.

특히 '大家(모두)'는 우리가 많이 써야 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필자는 작가나 번역가에게 '大家'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大家'라고 말은 하면서도, 펜만 들었다 하면 중국어 같지 않은 '人們'을 쓰면서 '大家'의 사용을 꺼려한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人們'이라는 단어의 역사를 고증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단어는 구어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현대 번역문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這一張片子演了兩天就演不下去了，大家不喜歡這種文藝氣氛太濃的片子。(모두들 이처럼 예술성이 짙은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는 며칠 방영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지, '人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大家'는 어감이 약간 '속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영어의 'everybody'와 같은 어감으로 속된 것과는 상관이 없다. 게다가 '大家' 말고는 'everybody'를 표현할 마땅한 단어도 없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밖에 좋은 표현으로는 '弄(~하다)'이 있는데, 이 단어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搞'와 동의어이다. '搞'도 매우 좋은 구어체이므로 필자가 이 단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搞'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방언이다. 하지만 '弄'은 표준어이며, 많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영국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make', 'get'을 중국어에서는 '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따라서 'you made it worse.'는 '你把這件事弄糟了。(네가 이 일을 망쳐놨어.)'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리고 'Get a copy of the book for me, won't you?'는 '替我把這部書弄一本來，好不好?(나 대신 이 책 복사해 줄 수 있니?)'로 번역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弄'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弄掉', '弄好' 등등이 아주 좋은 구어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쓸 때 우리는 보통 구어체를 잘 쓰지 않는데, 어떤 때는 구어체 단어를 몰

라서 못쓰는 경우도 있다. 강소성(江蘇省) 진강(鎭江)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재잘재잘 쉴 새 없이 지껄이는 모양을 말할 때 '韶刀(sháodao)'라고 한다. 필자는 원래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 지도 몰랐고, 따라서 당연히 사용할 엄두도 나지 않았었다. 후에 우연히 『국어사전(國語辭典)』에서 이 단어를 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韶刀'도 표준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명대소설에서 발췌한 '春梅見婆子吃了兩鐘酒, 韶刀上來了。(춘매는 할머니가 술 몇 잔을 마신 것을 보고 재잘거리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만약 이 문장을 '……絮絮不休(계속 말하다)'로 바꾼다면 구어체의 그 생생한 맛이 없어져 죽은 문장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모두에게 '韶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대화에서는 '韶刀'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문맥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명대소설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점은 정말 감탄할 만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아쉬울 따름이다.

'요리하다'라는 뜻의 '下茨(xiàqiàn)'은 원래 가정주부들이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글 쓸 때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국어사전』의 한 예를 보면, 상해(上海) 사람들은 옷을 빤다고 할 때 '汰衣裳(dàyīsha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汰'는 사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중국 대사전 편집부에서 펴낸『국어사전』은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은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굳이 많은 설명을 보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읽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글자 대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작가나 번역가들이 필요할 때 참고하면 좋다. 물론 '小不點兒(꼬마)', '小把戲(아이)' 등과 같은 일부 단어들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알고 있는 단어긴 한데 맞는 표현인지 의구심이 들거나, 글자를 잘 못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될 때,『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이처럼『국어사전』의 용도는 정말 광범위하다. 어떤 말들은 개인의 고향 방언이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방언들은 표준어권 지역에서도 이미 통용되고 있으므로, 너무 생소하지만 않다면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번역가의 영어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영문에서의 대화(인용 부호 안에 있는 말들)가 딱딱한 서면어가 아닌 구어체로 되어 있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쓰는 말들이 고상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표현을 위해서 비문법적인 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읽었을 때 뜻이 명확하지 않은 음절을 생략하거나, 심지어는 음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작가가 어떤 사람을 풍자하고자할 때, 고의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학식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꼬는 것이다. Dickens가 저술한 작품의 등장인물인 Micawber와, Austin이 쓴 작품의 등장인물인 Collins가 하는 말들이 모두 어려운 서면어로 쓰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번역을 하려면,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구어체 표현을 찾아내야 한다. 원작이 만약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의 말투로 쓰인 것인데, 이를 서면어도 구어체도 아닌 학구적인 말투로 번역한다면, 그 번역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인용 부호가 없는 서사, 설명, 묘사 등을 서면어로 쓰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용부호 안에 있는 말을 서면어로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면서 등장인물 개개인의 직업, 나이, 성별, 신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모두를 한사람의 말투로만 쓴다면, 외국인이 하는 엉터리 중국어가 되거나, 고등학생의 말투가 되어서, 소설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다. 이것 역시 번역에서 제일 금기시 되는 부분이다. 만약 일곱 살 된 여자 아이 혹은 광부가 대학교수가 강의할 때 쓰는 어투로 얘기한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겠는가?

필자가 예전에 어느 유명한 국어 학자의 백화문을 본 적이 있는데, '呀'의 쓰임도 계속 틀리고, 읽었을 때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이처럼 유명한 국어학자도 백화문에 정통하지 못한 것을 보면, 백화문을 글로 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쉬운 예로, '兩'과 '二'은 그 쓰임이 다르다(어떤 이는 '二'을 '兩'으로 읽어,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로, 문언의 '馬一', '牛一', '一飮一啄'를 백화로 바꾸면, '一匹馬(말 한 필)', '一頭(條)牛(소 한 마리)', '喝一口水、啄一口食(물 한 번 마시고, 음식 한번 먹다)' 등과 같이 '양사'가 많이 붙는다〔중국 문법에서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양사를 ‘보명사(輔名詞)’, ‘수위사(數位詞)’, ‘별사(別詞)’, ‘유사(類詞)’, ‘조명사(助名詞)’ 등으로도 부르는데, 그 명칭이 너무 많아 무서울 정도이다］.

문언을 백화로 바꿀 때, 단순히 몇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구조와 어휘를 모두 바꿔 써야 한다. 이것은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와 비슷하다.

현대 번역문에서는 백화의 ‘就’, ‘的’, ‘里’ 대신 ‘便’, ‘之’, ‘中’ 등의 문언 허사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혹시 ‘就’, ‘的’, ‘里’도 너무 ‘속된’ 글자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 대화 중에 문언 허사를 쓰면 일단은 자연스럽지가 않다(하지만 노서생들은 대부분 옛날 어투로 말하기 때문에, 문언 허사를 많이 쓴다. 이런 사람들이 대화할 때 문언 허사를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사람들이 그런 백화문을 쓰면 정말 어색하다).

글을 쓸 때 문언과 백화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修辭)’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백화문의 리듬과 음조

우리는 이직까지 백화문의 리듬(rhythm)에 대한 명확한 틀을 잡지 못했다. 외국식 표현을 빌자면 아직 '건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화문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리듬 부분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孩子本身經常表示喜歡父母愛護動物，這樣他們也好接近它們。
(아이들은 원래 부모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한다.
이래야 그들도 동물들과 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 문장은 틀린 곳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처럼 두 글자가 한 조를 이루는 구조일 경우, 읽었을 때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이 든다. 만약 각 조를 분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孩子　本身　經常　表示　喜歡　父母　愛護　動物　這樣
他們　也好　接近　它們。

단어들을 대체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이도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많은 유명 인사들의 글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처럼 단조로운 문장을 피하고 있다. 자세한 예를 들 필요 없이, 앞의 문장을 바꿔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孩子　本身　總表示　喜歡　父母親　愛　動物　這樣

他們　也可以　接近　動物了。

문언의 4·6구 역시 두 글자 두 글자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문언에서는 원래 시를 짓는 것처럼 엄격하게 평측(平仄)을 지킨다. 4·6구가 리듬감 있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평측의 변화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안정년(顔延年)이 쓴 '三月三日曲水詩序一首'의 첫 번째 구를 예로 들어보자.

方策　既載　皇王　之迹　已殊
(平仄　仄仄　平平　平仄　仄平)
鐘石　畢陳　舞咏　之情　不一
(平仄　仄平　仄仄　平平　仄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위 구절에는 평성자(平聲字)와 측성자(仄聲字)가 각각 5개씩 있고, 아래 구절에는 평성자가 4개, 측성자가 6개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큰 상관이 없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載', '王', '迹', '殊', '陳', '咏', '一' 등 마지막 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조는 반드시 이 부분이 달라야만 변화가 생긴다. 독자가 만약 이 중 한 문장을 골라 마지막 글자의 평측을 바꿔서 다시 읽어본다면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음평(陰平), 양평(陽平)은 모두 평성이고, 상(上) 거(去) 입(入)은 모두 측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테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비록 표준어에는 입성이 없지만,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문언시를 지을 때도 중원음운(中原音韻)을 따라야 한다〕.

요체시(拗體詩)의 운(韻)은 고의적으로 맞지 않게 한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고체시의 구(句) 역시 평성으로 압운(押韻)한 것이므로, 이 또한 별개

의 문제로 봐야 한다.

필자가 지금 옛날로 돌아가 변문(駢文*) 혹은 고문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백화문을 쓸 때도 평측에 주의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他沒有人照應、地位喪失、沒有事可做。

(그는 돌봐주는 이도 없고, 지위도 잃었으며,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 문장도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이지만, 읽어보면 꼭 딸꾹질하는 것처럼 두 세 글자를 읽을 때마다 말이 조금씩 끊어져 자연스럽지 못하다. 여기서 문제점은 각 문장의 마지막 글자가 모두 측성자라는 것이다(표준어에서 '失'는 평성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失'를 평성이 아닌 입성으로 보고 있다).

이 문장에서 마지막 글자인 '做'를 '爲'로 고친다면 한결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沒有'도 '無'로 바꿔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평측을 잘 쓸 줄은 모르지만, 음조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우선 한 문장을 써 놓고 읽어본 후 어색하다 싶으면, 듣기에 자연스러울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친다. 물론 이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하지만 만약 평측과 글자 조합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으므로, 한 두 글자만 고쳐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 역주: 대구(對句)를 이루어 구성된 한문 문체의 하나. 변려문(駢儷文) 변체문(駢體文)이라고도 하며, 당대(唐代)부터는 변려문이 4자와 6자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사륙문(四六文)으로 부르기도 했다. 문장의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

Ⅲ. 오류

‘중국어 문법’ 장에서는 번역문에서 중국어 문법을 어긴 예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그리고 ‘중국의 중국어’ 장에서는 비록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점이 없지만, 일부 번역문이 영어식으로 바뀌어 중국어 같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오류’ 장에서는 중국어 문법에 맞지 않거나, 영어식 중국어라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번역의 오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세 장과 다른 여러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번역문은 중국어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번역할 때 범하게 되는 갖가지 오류들은 대부분 영어의 영향으로 인한 것들인데, 이러한 영향을 오래 받다 보면 번역문이 점점 더 영어식으로 바뀌게 되어, 읽는 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사람들이 불신하게 된다. 또한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읽으면, 글이 세련돼 보여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이처럼 영어식 문장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원래 중국인들은 영어 공부를 할 때 우선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그 후에 영어의 표현법, 문장구조, 문장작법 등을 배우는데, 이것은 아주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하지만 번역의 오류는 이와 같이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어들은 마작의 ‘백탑(百搭)*’처럼 너무 자주 쓰여서, 결과적으로 그 뜻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문장구조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구조와 맞지 않아,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비록 어떤 단어와 문장구조의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글 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글과 말에 모두 쓰이는 단어, 문장구조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금방 중국어의 일부분이 될 것처럼 보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역주: 마작 패(牌)의 한 가지, 다른 어느 패에도 통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가지면 대단히 유리함. 조커라고 할 수 있음.

지만, 필자는 지금도 이것들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현재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들도 아마 2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현재와 20년 후의 상황은 다른 것이다. 현재는 현재이고, 20년 후는 그 때 다시 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표현들을 다른 사람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내가 한 말은 단지 내 생각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토론의 여지가 있음을 여기서 미리 밝혀 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본서는 번역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모든 번역문은 중국인이 쓴 중국어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들이 더욱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본 '오류' 장에서는 '중국의 중국어' 장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필자가 이런 오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중국어도 현재 변하고 있다. 하지만 글자를 쓸 때 반드시 가로획은 가로획처럼, 세로획은 세로획처럼 써야 하듯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 같은 말을 해야 한다. 본 장에서 예로 든 문장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장이지만 대부분이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므로 교정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 명사의 동사화

번역문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한 문장을 명사로 된 문장에 끼워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人們進行了一項曆時一周的觀察，對這個新單位已獲得初步的認識。如果再經過一項和外國同樣單位的發展情況的比較，相信可以獲致較佳的認識。(사람들은 일주일 간의 관찰을 진행함으로써, 이 새로운 기관에 대하여 이미 초보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만약 다시 외국의 같은 기관과의 발전상황의 비교를 거친다면, 비교적 좋은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문장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장이 어딘지 모르게 중국어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觀察了一周。(일주일을 관찰했다.)'는 문장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進行了一項曆時一周的觀察。(일주일간의 관찰을 진행했다.)'처럼 억지로 명사로 만들어진 틀 속에 끼워 맞췄다. 또한 'unit'를 '機構(기구)'가 아닌, '單位(기관)'로 번역했는데, 이것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已經略知梗概。(이미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굳이 '獲致了初步的認識。(초보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외국어식 번역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편리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번역은 중국어 같지 않기 때문이다. '經過一項比較(비교를 거쳐서)' 역시 아주 어색한 표현이다.

'較佳的認識(비교적 좋은 인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처럼 굉장히 단조로운 문장을 거의 쓰지 않는다. 만약 외국 문장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번역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써 보라고 하면, 아마도 '大家把這個新機構研究了一個星期，已經略知梗概，如果再拿它和外國同樣的機構比較一下，相信還要多明白一些。(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구를 일주일간 연구한 결과 이미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만약 다시 그것과 외국의 같은 기구를 비교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쓸 것이다. 이런 번역이 그다지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가 '고상함'의 표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같은 구조의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做這次旅行(come along this trip) -이번 여행을 하다

作了一次私下談話(held a private interview) -한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作了五年的奮鬪 -5년간의 분투를 했다〔왜 '奮鬪了五年(5년 동안 분투했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進行了爲期三日的硏究 -3일간의 연구를 했다〔여기서 '爲期(기간의)'는 주의해야 하는 표현이다〕

做些什麽商談 -무슨 의논을 했니〔'談些什麽(무슨 얘기했니)'로 바꾸는 것이 좋다〕

得到更大的安全 -더 큰 안전을 얻다〔'更安全些(더욱 안전하다)'라고 바꿔 써야 한다〕

進入睡眠狀態 -수면 상태로 들어가다〔아마도 이 문장의 원문은 'entered into a dormant state.'가 아니라 'fell asleep'일 것이다. 이런 번역문은 번역가가 영어 문법에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쓴 것이다. 일부 번역가들은 '睡着了(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투박'하다면서 쓰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從事種種預防措施 -다양한 예방 조치에 임하다〔비록 같은 명사 구조이기는 하지만 '采取種種預防步驟(다양한 예방 절차를 취하다)'라는 표현이 더욱 좋다〕

從事一次航行 -한 번 항행을 하다〔'航行(항행하다)'만으로 충분하다〕

심지어 이런 문장도 있다. '走私案中最惊人的一點，是財政部長的牽涉在內。(밀거래 안건 중 사람들을 제일 놀라게 하는 점은, 재정 장관의 관련 내재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His generosity costs him a million dollars.', 이 문장을 '他爲了這項慷慨行爲而花了一百萬元。(그는 이런 선심성 행동을 위해 백만 위안을 썼다.)'이라고 번역한다면 명사 사용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엄격하게 따지면, 그가 돈을 쓴 것은 '這項慷慨行爲(이런 선심성 행동)'를 위해서가 아니라 '生性慷慨(그의 타고난 성격이 호탕)'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간단하게 '就因爲生性慷慨，他才用掉了一百萬塊錢。(그는 타고난 성격이 호탕해서 백만 위안을 써버리고 말았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他履行他作的承諾。(그는 그가 한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식의 번역문을 보게 되는데, 원문은 'He kept his promise.'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 이 문장을 일상적인 말로 바꾼다면 '他說的話作得數。(그가 한 말은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면어로는 '彼重然諾' 정도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以手槍和不怕死給無法無天的鎭市帶來公道 -권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써, 무법천지인 도시에 정의를 가져왔다〔이 문장은 '凭手槍和無畏精神在無法無天的鎭市上維持公道。(권총과 두려움을 모르는 정신으로 무법천지인 도시의 정의를 지킨다.)'라고 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答 -대답을 제기하다〔'答(대답하다)'로 바꿔 써야 한다〕

實行自殺 -자살을 실행하다〔'自殺(자살하다)'로 바꿔 써야 한다〕

對他所作的表示 -그가 한 것에 대한 표시 (이 문장은 어딘가 어색하긴 한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원문 내용을 잊어버려서 다시 수정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作了一次私下談話 -한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했다〔'私下和他談了一次(비공식으로 그와 대화를 한 차례 나눴다.)'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

作一個九十度的轉彎 -90도의 전환을 했다〔'make a 90-degree turn.', '轉了個九十度的彎(90도 전환했다)'이라고 해야 한다〕

作了五年奮鬪 -5년간의 분투를 했다〔'奮鬪了五年(5년 동안 분투했다)'이라고 바꿔 써야 한다〕
作重大改革 -중대 개혁을 하다〔'大加改革(대대적으로 개혁하다)'라고 해야 한다〕

對她進行勸告 -그녀에 대하여 권고를 진행하다〔'勸她(그녀에게 권고하다)'라는 표현이 더 좋다〕

在老鼠身上進行試驗 -생쥐 몸에 실험을 진행하다〔이 문장도 문제가 있다. 왜 '拿老鼠做試驗(생쥐로 실험하다)'이라고 하지 않은 것일까?〕

假定了一個理論 -한 이론을 가설로 정했다〔이 문장 역시 문제가 있다. '有個理論(이론이 있다)'이라고 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發生損坏 -파손이 발생했다〔'損坏(파손시켰다)'라고 바꿔야 한다〕

人民無法獲得較佳的生活 -국민들은 비교적 좋은 생활을 얻을 수가 없다〔'人民生活無法改善(국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다)'으로 바꿔 써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많은 글자와 단어들은 마작의 '百搭(조커)'처럼 쓰임이 너무 광범위해졌다. 예를 들어 '接受'는 원래 '받아들이다(收受), 승인하다(承認)'라는 뜻으로, '你的好意我接受。(당신의 호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這些條件我不能接受。(이런 조건을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등의 문장에 쓰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

들이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接受中國最好的治療。-중국 최고의 치료를 받아들이다

使他接受人工呼吸。-그에게 인공호흡을 받아들이게 하다

接受手術。-수술을 받아들이다 (submit to operation)

이 세 문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 온 말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는 보통 '請國內最有名的醫生替他看病。(국내 최고의 유명 의사에게 그의 병을 보게 하다.)' [만약 '看病(병을 보다)'이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治療(치료하다)'라고 바꿔 쓸 수 있다], '替他行人工呼吸。(그에게 인공호흡을 하다.)', '動了手術。(수술했다.)'라고 말한다.

'接受'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단어이다. '我就要受更重要的教育了。(나는 곧 더 중요한 교육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도 되는 문장을 굳이 '我卽將開始接受一種更爲重要的教育了。(나는 곧 더욱 중요한 교육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원문에 'accept'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문장의 영문은 대략 'I was to have even more important instruction.'이 될 것이다.

'這種价格一般消費者都能接受。(이런 종류의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공증된(authorized) 번역문이다. 원문의 'accepted'를 딱히 다른 글자로 번역할 수 없긴 하지만, 이 예문은 중국어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種(종류)'을 쓸 수 없다]. 필자 생각에는 '這樣的价格一般消費者還不覺得很貴。(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다.

'I received a medical examination.', 이 문장에서도 'received'를 꼭 '接受(받아들이다)'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다. '我檢查了身體。(나는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해도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接受龐大支出。(막대한 지출을 받아들이다.)'라는 번역문도 있다. 필자가 추측하건대 원문은 아마 'resigned to the expenses.'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 '接受津貼。(수당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지출이라는 것은 비록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授)' 것이지 결코 '받는(受)' 것이 아니다. 만약 원문이 'resigned'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接受(받아들이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雖然要花許多錢, 也沒有法子了。(비록 돈을 많이 쓴다 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 정도로 번역하기로 하자.

'做(하다)' 대신 '進行(진행하다)'을 쓰기도 하는데, '進行'으로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向前做(앞을 향해 하다)'라는 뜻이 있을 때에만 '進行'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這件事做得嗎?(이 일 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你去進行好了。(당신이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라고 대답 할 수 있다. '這個計劃在進行中。(이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문장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進行訓練人員工作。(인력 훈련 작업을 진행하다.)'라는 문장에서는 '進行'이 필요 없다. 그냥 '訓練人員。(인력을 훈련시키다.)'이라고만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進行計劃。(계획을 진행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進行一項計劃。(한 계획을 진행하다.)'도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to provide basis.'는 일반적으로 '提供基礎。(기초를 제공하다.)'라고 번역된다. 하지만 '기초(基礎)'는 사실상 '제기(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供)'하는 것이다. 만약 원문이 'It provides a basis for future development.'라면, '('此擧' 等等)替未來的發展打下了基礎。［('이러한 것들이')미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 ‘一種’, ‘一個’, ‘一項’

이 절(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한 선배가 필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一種(일종, 한 종류)’은 주의해야 하는 단어이다. 필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영어 문장에서 명사 앞에 빼놓지 않고 집어넣는 관사는 ‘the’가 아니라 ‘a’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런 성가신 관사가 필요 없다. 어떤 이는 ‘一種’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데, ‘一種他們稱爲吸血鬼的一種飛機(일종의 그들이 흡혈귀라고 부르는 일종의 비행기)’처럼 문장 시작 부분에 이미 써놓은 것도 모자라서 뒤에 또 다시 쓰곤 한다.

사실 ‘他們稱爲吸血鬼的飛機(그들이 흡혈귀라고 부르는 비행기)’라는 문장처럼 ‘一次’, ‘一種’을 모두 생략해도 무방하다.

백화문에서도 ‘種(종류)’이라는 글자가 너무 남용되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때는 ‘一個(한 개)’라고 번역해야 할 곳을 ‘一種(한 종류)’이라고 오역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 barrier’에서 ‘장벽’의 양사는 ‘種’이 아니라 ‘個’이고, ‘a gutter’에서 ‘하수도’의 양사는 ‘種’이 아니라 ‘條’라고 해야 한다. 한 신문의 의학 번역문에서 ‘……這一種醫學上的爭論, 雖然我們未曾目擊……(……이런 종류의 의학상의 논쟁을, 비록 우리가 목격하지는 못했지만……)’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다. 영어 원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에서 ‘一種’은 반드시 ‘這次(이번)’라고 해야 맞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因爲這樣才可以使醫生獲得機會, 發掘一種新的見解?(이렇게 해야만 의사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새로운 견해를 이끌어낸 것인가?)’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문장의 원문도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一種’도 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언어학자인 조원임(趙元任)도『언어문제(語言問題)』제 1페이지 세 네 번째 줄에서 ‘……我覺得是一件很愉快、很榮幸, 使我很興奮的一件事情。(내 생각에는 한 가지 아주 즐겁고, 영광스러우며, 나를 흥분시키는 한 가지 일인 것 같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어가 영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드시 '一個'로 바꿔야 한다. 예는 이것으로 충분하므로, 더 이상 예를 들지는 않겠다.

번역문에서 '一個'는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와서 독자들을 교란시키는 '파리'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번역문을 예로 들어보겠다. '人的每一個動作, 每一種思想, 每一項情緒……(사람의 동작 하나 하나, 각 종류의 사상, 각가지의 정서……)'* 라는 문장에서 '種(종류)'은 문제가 있다. 한 사람에게 대체 몇 종류의 사상이 있을까? '적극적', '소극적', '진보적', '낙오적', '진취적', '퇴폐적', '소년의', '노년의'……, 이 중 어떤 종류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원문에서 말하는 것은 한 '종류(種)'가 아니고, 단독적인 한 '개(個)'의 생각이다. 어쩌면 '한 순간의 생각(一念)'일지도 모른다. 이 번역문은 그 페이지 여섯 줄 안에서만도 '一個時間(한 개의 시간)', '作爲一個……(한 개의……로서)', '一個……事實(한 개의……사실)' 등등 '一個'가 7번, '一種'이 3번 나왔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一個'가 8번 나왔다.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 이쯤 되면 어떻게 해서 '他是一個年紀大, 家里很有錢, 妻妾多得數也數不清的一個老人。(그는 한 명의 나이가 많고, 집에 돈이 많고, 처와 첩이 셀 수 없이 많은 한 명의 노인이다)'이라는 번역이 나올 수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어떤 경우는 '一個'가 영문 원문에서 'a'가 아니라 'the'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를 잘 몰라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한다. 'He is the man who killed the murderer.'를 '他是個殺死那凶手的人。(그는 그 흉악범을 죽인 한 사람이다.)'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一個'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一個'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장은 '他就是那個……(그가 바로 그……)'라고 간단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the greatest problem of his life.' 역시 '他一生一個最重大的問題(그의 일생에 하나의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번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는 '一個'를 쓸 수 없다.

'new methods'를 '一種新方法(일종의 새로운 방법)'로, 'more difficult ways'를 '一

---

* 번역가가 '個', '種', '項'이라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양사를 사용했는데, 아주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만약 이런 문장이 더 길어졌다면 알맞은 양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個更艱難的途徑(하나의 더욱 험난한 길)'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복수 명사를 번역할 때도 '一個' 혹은 '一種'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틀린 번역이기도 하다.

'一項(한 항목)'도 '一種'처럼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고, '一個'처럼 남용되기도 한다.

『홍루몽(紅樓夢)』 제31회를 보면 '一個'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번역문처럼 그렇게 많이 쓰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把四個戒指放下, 說道襲人姐姐一個, 鶯鶯姐姐一個, 金釧兒姐姐一個, 平兒姐姐一個……(가락지 네 개를 내려놓고 말하길, 습인 누이 하나, 앵앵 누이 하나, 금천아 누이 하나, 평아 누이 하나……)'라는 문장처럼 숫자를 세야 하는 부분에서만 '一個'가 쓰였다. 그리고 만약 현대번역 습관대로 썼다면, '一個', '一種' 등등을 많이 넣었을 테지만, 처음 스무 줄 안에는 '一個'가 하나도 없었다.

話說襲人見了自己吐的(一口)鮮血在地, 也就冷了半截。想着往日常聽人言, (一個)少年吐血, 年月不保, 縱然命長, 終是(一個)廢人了。想起此言(這一項言論), 不覺將素日想着後來(的一種)爭榮夸耀之(一番)心, 盡皆灰了, 眼中不覺的滴下泪來。寶玉見他哭了, 也不覺有一種心酸, 因問道: "你心里覺得怎麽樣?" 襲人勉强笑道: "好好的覺怎麽呢。" 寶玉的意思卽刻便叫人燙(一種)黃酒, 要(一種)山羊血嚼峒丸來, 襲人拉住他的手笑道: "你這一鬧, 不打緊, 鬧起多少人來, 倒抱怨我輕狂。分明人不知道, 倒鬧得人知道了, 你也不好, 我也不好。正經你明日打發(一個)小子, 問問王太醫去, 弄(一)點子藥吃吃就好了, 人不知道不覺的, 可不好?" 寶玉聽了有理, 也只得罷了。向案上斟了(一杯)茶來, 給襲人漱了口, 襲人知寶玉心內也不安穩的; 待要不叫他伏侍, 他又必不依; 二則定要惊動別人, 不知由他去吧。因此倚在(一張)榻上, 由寶玉去伏侍。一交五更, 寶玉顧不得梳洗, 忙穿衣出來, 將王濟仁叫來, 親自确問。王濟仁問其原故, 不過是(一種)傷損, 便說了(一種)丸藥名字, 怎麽服、怎麽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寶玉記了，回園來依方調治，不在話下。這日正是端陽佳節，蒲艾簪門，虎符系背。午間，王夫人治了(一桌)酒席，請薛家母女等賞午，寶玉見寶釵淡淡的，也不和他說話，自知是昨日的原故。王夫人見寶玉沒精打采，也只當是昨日金釧兒之事，他沒好意思的，越發不理他。林黛玉見寶玉懶懶的。只當是他因爲得罪了寶釵的緣故，心中(有一種)不自在，形容也就懶懶的，鳳姐昨日晚間，王夫人就告訴了他寶玉金釧的事，知道王夫人不自在，自己如何敢說笑，也就隨着王夫人的氣色行事，更覺淡淡的。迎春姐妹，見衆人無意思，也都無意思了。因此大家坐了一坐，就散了。林黛玉(有一種)天性，喜散不喜聚，他想得也有一個道理。

(자기가 토해 놓은 피를 보고 자지러질 듯이 놀란 습인은 가슴이 얼어드는 것 같았다. 그는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얼핏 머리 속에 떠올랐다. '젊어서 각혈을 하게 되면 오래 살기가 어렵거니와 또 설사 목숨이 부지된다 하더라도 폐인이 되기가 쉬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부귀영화를 바라고 살자던 희망이 일시에 불 꺼진 재가 되고 마는 것 같았다. 습인의 눈에서는 어느덧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습인의 눈물을 본 보옥 역시 가슴이 아팠다. "기분이 좀 어때?" "이젠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습인은 억지로 웃어보였다. 보옥은 당장 사람을 불러다 황주(黃酒)를 데워오게 하고 산양혈려동환(山羊血嶩峒丸)을 가져오게 해서 습인에게 먹일 생각이었지만 습인은 그러는 보옥의 손목을 붙잡고 한사코 말렸다. "그만두세요. 도련님!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모두 단잠이 들었을 터인데 쓸데없이 사람들을 깨우면 제가 먼저 원망을 사게 되지 않겠어요? 또 공연히 남들까지 알게 되면 도련님한테도 좋지 않고 저한테도 나빠요. 그러시기보다 내일 하인 아이를 시켜서 왕 의원한테 가서 물어 보고 약이나 좀 지어다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 소문도 안 날 테니 좋지 않아요?" 습인의 말이 옳다고 여긴 보옥은 사람을 부르려던 것을 그만두고 손수 상 위에 놓인 차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따라 습인에게 주며 입을 헹구게 했다. 습인은 보옥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보살핌을 거절하고 싶었으나 거절을 해도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깨우기보다는 차라리 보옥이 하는 대로 가만 놓아두는 편이 나을 듯싶었다. 그리하여 습인은 누운 채 보옥의 간호를 받았다. 새벽이 되자 보옥은 얼굴을 씻을 새도 없이 옷을 걸치고 나가서는 하인 아이를 시켜 의원 왕제인(王濟仁)을 불러오게 했다. 보옥이 직접 처방을 물어보자 의원은 발병 원인이 타박상인 것을 알고는 환약 이름을 알려주며 먹는 방법과 바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보옥은 그 길로 원내로 돌아와 습인에게 치료를 시작했다. 이날은 마침 단오 명절이었다. 집집마다 전해 오는 풍속대로 대문에는 창포와 약쑥을 꽂고 뒷문에는 범을 그린 부적을 붙였다. 점심때쯤 하여 왕 부인은 음식을 장만해 놓고 설씨 댁 모녀를 청했다. 모두들 모여 앉기는 했으나 보채가 담담한 기색으로 자기와는 말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보옥은 어제 일 때문에 그러거니 생각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편 왕 부인은 왕 부인대로 보옥이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어제 금천아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냥 모른 체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대옥은 대옥대로 보옥이 시무룩해 있자 보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 기분이 우울해졌고, 희봉은 또 희봉대로 어제 왕 부인에게서 보옥과 금천아의 일을 전해들은 터라 지금 왕 부인이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는 것이거니 생각되어 그전처럼 감히 웃고 떠들지를 못했다. 영춘이 또래들도 재미가 있을 리 없었다. 그리하여 모처럼 가졌던 명절 모임이지만 사람들은 어색하게들 앉아 있다가 이내 헤어졌다. 임대옥은 워낙 천성이 외로운 것을 좋아하고 한데 모여 있기를 싫어하는 성미였지만 따져 보면 그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 역주: 위 홍루몽의 번역은 안의운/김광렬이 옮긴 『홍루몽 2』 p.305 ~ p.307 부분을 참고하여 옮긴 것임.

마지막 부분의 '一個'가 원문 스무 번째 줄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원문에서는 명사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一個', '一種', '一項'을 넣지 않았지만, 만약 이 단락을 번역문체로 다시 쓴다면, 단 몇 개의 '一個', '一種'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縱然命長(설사 목숨이 부지된다 하더라도)'을 '縱然活了一個很長的壽命(설령 아주 긴 수명을 살았다 할지라도)'으로 고치면 벌써 '一個'가 덧붙는다. '寶玉見寶釵淡淡的(보옥은 보채의 담담한 기색을 보고)'라는 문장을 만약 명사를 사용해서 '寶玉見寶釵有一種淡淡的神態(보옥은 보채가 일종의 담담한 표정을 지은 것을 보고)'라고 바꾸면, 바로 '一種'이 생겨난다. 또한 '寶玉……將王濟仁叫來, 親自确問(보옥은……하인 아이를 시켜 의원 왕제인(王濟仁)을 불러와서는, 직접 처방을 물었다)'을 '……親自作了一番确切的詢問(직접 한번 확실한 질문을 했다)'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문장들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a long life', 'with a nonchalant look', 'made an exacting enquiry' 등등처럼, 어쩔 수 없이 'a'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독자가 만약 앞에서 든 예와 조설근(曹雪芹)의 원문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번역가들도 '一個', '一種'을 많이 쓰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아직 관사(冠詞)의 사용에 주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래서 필자가 『홍루몽』 예문을 다시 든 것이다(앞서 예로 든 『홍루몽』은 필자가 뒷부분에서 현대 번역 습관에 따라 다시 썼다). 『홍루몽』을 만약 번역문체로 번역한다면, '一個', '一種', '一項'을 한 몇 만 개 정도는 덧붙여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얻다(得到)' 아니면 '이루다(作成)', '급여하다〈주

다〉(給與〈予〉)' 아니면 '취득하다(取得)', '종사하다(從事)' 아니면 '진행하다(進行)', '증명하다(証明)' 아니면 '나타나다(顯示)', '제공하다(提供)' 아니면 '받아들이다(接受)', '시도하다(試圖)' 아니면 '견지하다(堅持)'인 것처럼 보인다. 영어에서 'make', 'get', 'take', 'give', 'show', 'prove', 'provide', 'accept', 'attempt', 'insist' 등과 같은 단어는 'heavyduty words(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라고 불린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提供', '堅持' 등은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만약 이런 단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면, 틀림없이 번역문이 엉망이 될 것이고 결국은 중국어 자체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基于' 역시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은 'based on'에서 번역된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원문에 'based on'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예를 들어, 'profiting from earlier mistakes'라는 문장에는 'based on'이 없고, 또 우리의 언어습관으로는 보통 '鑒于……(……을 감안해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것을 '基于過去的錯誤(지난날의 잘못에 근거하여)'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또한 '基于保密的原因(비밀보장 원인에 근거하여)'라는 문장도 '爲了保密(비밀 보장을 위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基于'는 아직까지는 서양식 문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완전히 통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前者', '後者'

영어의 축약법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제일 대표적인 용법은 바로 대명사의 사용이다. 'they'와 'it'에 대해서는 필자가 특별히 다른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the former'와 'the latter'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현재 우리는 백화문을 쓸 때도 '前者(전자)', '後者(후자)'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런 단어가 있는 문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항상 두 가지 일, 혹은 동물 두 마리,

혹은 두 가지 물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된 후에는 순간 멍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겨우 이거야?'하고 묻게 된다. 예를 들어, 'He (a pig) looked at the cow, and the cow looked at him.'이라는 문장을 '猪瞧那頭牛，後者也瞧它。(돼지가 그 소를 쳐다보고 후자도 그것을 쳐다본다)'라고 번역하면, '문법에 맞는' 정확한 표현이 된다. 하지만 '後者'가 '소'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조금 씁쓸하고 거북한 느낌마저 들어서(어떤 이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면 '猪瞧牛，牛也瞧猪。(돼지가 소를 쳐다보고, 소도 돼지를 쳐다본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그다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더욱 경제적인 표현이다.

'上下兩條路……後者(위아래 두 갈래길……후자는)'라는 문장에서 어쨌든 간에 '後者'는 부자연스럽다. 그냥 '下一條(아랫길)'라고 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영국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The Complete Plain Words*』의 저자 Sir Ernest Gow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Do not hesitate to repeat words, rather than use *former* or *latter* to avoid doing so. The reader probably has to look back to see which is which, and so you annoy him and waste his time.
>
>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오히려 '전자', '후자'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독자들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자', '후자'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독자를 화나게 하는 일이며, 또한 독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말 훌륭한 말이다. 중국인들을 대신해 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작가 혹은 번역가들은 일반적으로 '前者', '後者'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Sir

Ernest Gowers가 한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5. 번역문체

번역문체는 번역하기에도 편할 뿐만 아니라, 창작을 할 때도 자주 인용된다. 이처럼 번역문의 힘이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번역문체가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다. 『홍루몽』제31회의 처음 부분을 번역문체로 약간 수정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在看到她吐在地上的一口鮮血後，襲人就有了一種半截都冷了的感覺，當她想着往日常聽人家說，一個年輕人如果吐血，他的年月就不保了，以及縱然活了一個較長的生命，她也終是一個廢人的時候，她不覺就全灰了她的後來爭榮夸耀的一種雄心了。在此同時，她的眼中也不覺地滴下了泪水。當寶玉見她哭了的時候，他也不覺有一種心酸。因之他問:“你心里覺得怎麽樣?”他勉强地笑着答: “我好好地，覺得怎麽呢?” 寶玉的意思，他卽刻便企圖叫人去燙一種黃酒，要一種山羊血嚼峒丸來。她拉住他的手笑: “你這一鬧不打緊，鬧起了多少人來，人們倒要堅持我是屬于一種輕狂的人; 我的病分明人們不知道，給你一鬧，倒鬧得他們知道了，你還是明天打發一個小子，問問那位王太醫去，向他弄一點藥給我吃吃，我將痊好。人們不知道，不覺得，可不好?” 寶玉接受她的話，也只得罷了。然後他向案上斟了一杯茶來，給她漱了口，她知道他內心也有一種不安，她如果不讓他提供一番伏侍，他又必然不依，和必然惊動別人，她不如由他去吧。因之，她倚在她的榻上，由他提供他的伏侍。當一交五更的時候，顧不得他的梳洗，寶玉就急忙地穿了他的衣服出來，將王濟仁叫來，他親自作了一番确切的詢問。當問她的病的原故的時候，那太醫知道這不過是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種傷損。他便說了一種丸藥的名字，教了他如何服吃和敷搽，寶玉記住它們，他回園來依着那方子進行了一項調治。這項事暫時停止去提。這天正是端陽佳節，每一個人家用蒲艾簪在門上，把虎符系在背上。在中午的時候，王夫人擺了一桌酒席，請了薛家母女等從事賞午。寶玉發現，寶釵有一種淡淡的神態，和她的不和他說話，他知道這是爲了他昨天得罪了她的緣故。王夫人看見寶玉的沒精打采，也只當他是爲了昨日金釧兒的事情的原故，他也沒好意思的，所以她也越發不理他。林黛玉看見寶玉一副懶懶的樣子，只當他是因爲得罪了寶釵的原故，所以她心里也不自在，也就顯示出一種懶懶的情況。鳳姐昨天晚上就由王夫人告訴了她寶玉金釧的事，當她知道王夫人心里不自在的時候，她如何敢說和笑，也就作了一項決定，隨着王夫人的氣色行事，更露出一種淡淡的神態。迎春姐妹，在看見着衆人都覺得沒有意思中，她們也覺得沒有意思了。因之，她們坐了一會兒，就散了。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一個', '一種', '一番', '他', '她', '他的', '她的', '當……的時候', '這', '在……' 등을 터무니없이 많이 덧붙였는데 문장의 뜻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淡淡的'를 '有一種淡淡的神態(일종의 담담한 표정이 있다)'라고 고친 것처럼 동사·형용사 대신 명사를 많이 썼는데, 이 또한 좋은 표현이 아니다. 독자들은 '모든 소설가들이 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소!'라고 말 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일부 작가들은 그들만의 번역문체로 창작을 해 버리기도 한다.

만약 조설근의 중국어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한다면(사실『홍루몽』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좋아하는 책이다), 우리는 왜 외국문장을 번역할 때 그가 구사했던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영·중 번역시 영어의 'a', 'the', 'my', 'his', 'her', 'I', 'we', 'he', 'she' 등등을 생략하면, 번역문의 뜻이 모호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번역문이 '원문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번역가를 절대 비난할 수 없다. 중국 문자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있는 관사와 대명사를 쓰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고 해서 의미전달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번역가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심사숙고 한다면, 글 쓰는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훨씬 좋은 번역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6. '數以……計'

중국어의 '數以……計(……을 헤아린다)'에는 조금 의외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상자 수가 많음을 표현할 때 '數以萬計(만을 헤아린다)'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만약 'dozens of……'를 '數以打計(다스를 헤아린다)'라고 번역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수치를 '다스'를 사용해서 의아한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사실 많음을 나타낼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許多(아주 많다)'를 쓸 수 있다. 또한 'hundreds of……', 'thousands of……'(혹은 'hundreds and thousands of'), 'millions of……' 등은 '數以百計(백을 헤아린다)', '數以千計(천을 헤아린다)', '數以百萬計(백만을 헤아린다)' 등으로 번역되는데, 물론 이런 번역도 괜찮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無數(무수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만약 번역문 여기저기서 '數以……計'가 계속 쓰인다면 독자들이 귀찮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7. '存在'

'存在(존재하다)'가 타동사로 쓰이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우리는 단순히 '這種現象存在一天, 一天不得太平。(이런 현상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하루는 평안할 수 없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다.)'이라고 말하지, '社會上存在着頹廢風氣。(사회에 퇴폐적인 풍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사실 'exist'는 영어에서도 타동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어로 번역되면 오히려 영어보다 더 영어식으로 바뀐다. 왜 '有(있다)'라는 좋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일까?

'有', 이 단어는 아주 좋은 중국어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대 번역가와 작가들은 '有'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비속하다'고 사용하기를 꺼려하며, '품위 있는' 다른 말로 대신한다〔'중국어 단어(中文字詞)'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8. '試圖'

'試圖(to try, to attempt)'는 거의 외국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百搭(조커)'처럼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다. 'I tried to convince him.'을 '我試圖說服他。(나는 그를 설득하는 것을 시도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我勸過他, 叫他聽我的話。(나는 그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설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Please try to come over to our side.'를 '請試圖到我們這邊來。(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도록 시도해 보시오.)'라고 번역한다면, '請你想法子到我們這邊來。(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 방법을 강구하시오.)'라고 번역하는 것 보다 훨씬 수월하다. 그러나 'to try'는 앞 뒤 문장에 따라 '用心(심혈을 기울여)', '想法子(방법을 강구하여)', '動腦筋(머리를 써서)', '打打主意看(방법을 생각해서)' 등으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도, 절대로 '試圖'라고는 번역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영문자(英文字)' 장에서 이미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9. '带来'

많은 사람들이 'bring'을 '帶來(가져오다)'로 번역한다. 하지만 'Good news brought cheers to his eyes.'를 '好消息給他的眼睛帶來歡樂。(좋은 소식은 그의 눈에 기쁨을 가져다주었다.)'라고 번역하거나, 'His books bring him $5,000 a year.'를 '他的書帶給他每年五千元。(그의 책은 그에게 매년 5천 위안을 가져다준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모두 좋은 번역이 아니다. 이것은 '他聽到好消息，喜上眉梢。(그는 좋은 소식을 듣자 희색이 만면했다.)', '他的書每年有五千塊錢進款。(그의 책은 매년 5천 위안을 벌어들인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원문에 'bring'이 없는데도 '帶來'를 써서 번역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Reading supplies him with endless entertainment.'를 '讀書給他帶來無窮樂趣。(독서는 그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처럼 번역한 문장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간결하게 '他讀書，其樂無窮。(그는 책을 읽으면 한없이 즐거워진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는 앞뒤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중국어는 그와 반대로 끊어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0. 조심해야 할 '性'

'性'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단어이다. '積極性(적극성)', '消極性(소극성)', '高尙性(고상성)' 등은 모두 중국어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인들은 '性'자를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어의 '-ty', '-ity', '-ness'는 '性'으로 번역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The simplicity and inexpensiveness of these mechanical tools……'를 '那些機械工具的簡便性與廉价性……(그러한 기계 공구의 간편성과 저렴성……)'이라고 번역하겠지만, 이 번역은 정말 어색하다.

'承認問題的重要性和迫切性。(문제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인정하다.)', 이 문장 역시 부자연스럽다.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and the urgency of the problem.', 이 원문은 '承認問題嚴重, 也很迫切。(문제가 심각하고 매우 긴박함을 인정하다.)'라고 번역하면 된다〔비교해 보면, '連貫性(연관성)', '長期性(장기성)' 등은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용법은 영어에서 어미가 '-ty', '(-ity, -ety) -ness' 등으로 된 명사를 번역한 것이다. 사실 영국인들은 이런 명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일찍이 Fowler 형제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The King's English*』 p. 15 참고). 예를 들면, 'The general poverty of explanation at to the direction of particular phrases seemed to point in the same direction.', 이 문장은 'poverty' 같은 명사의 사용이 많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받았다. 게다가 그들은 『*Cambridge University Reporter*』에 쓰여 있는 문장에 대해서도 "이처럼 쓸데없이 사족이 많으면, 'was often so badly explained(종종 올바르지 않은 번역)'가 될 수밖에 없다"고 냉철하게 비판을 가했다. 이렇게 케임브리지 대학(Cambridge University) 사람들이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영어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남보다 한 수 위라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일부 번역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번역가가 일부 어감을 인위적으로 바꿔, 원래 분명했던 의미를 부자연스러운 외국식 문장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性'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1. '取'

시(詩)에서 동사 뒤에 '取'가 오면, 영어의 '-ing'처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게 된다(단 백화문에는 '取'를 사용하지 않고 '着'를 쓴다). 잠참(岑參)의 시 '看取鬢成絲。(귀밑머리가 하얗게 실이 된 것을 보게.)'와, 백거이(白居易)의 시 '聽取新翻楊柳枝。(버들가지 새로 연주하는 것 듣게나.)', 무측천(武則天)의 여의낭시(如意娘詩) '不信比來長下泪, 開箱驗取石榴裙。(만약 임금이 흘린 눈물을 믿지 못한다면, 상자를 열어 붉은 치마가 눈물로 얼룩진 것을 보시오.)' 등등 예가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왕유(王維)의 '노장행(老將行)'에 있는 '少年十五二十時, 步行奪取胡馬騎。(열다섯, 스무 살 소년 시절에 남의 호마 빼앗아 타고 다녔네.)'라는 시구(詩句)처럼 '得(얻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악부시집(樂府詩集)』에는 '奪得(획득하다)'라고 쓰여 있다〕. 원진(元稹)의 '육년춘견부시(六年春遣怀詩)'에 있는 '小于潘岳頭先白, 學取庄周泪莫多!(어린 반악의 머리가 먼저 셌네. 장주를 배우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 마라!)' 등도 그 예이다(『시사곡어사회석(詩詞曲語辭匯釋)』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늘날 '求取(추구하다)' 등 많은 글자가 '取'와 결합하여 쓰이는데, 아주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어의 '求取'는 문언에서는 '謀(꾀하다)'로, 백화에서는 '想要得到(얻고 싶어 하다)'로 쓰인다. 또한 '聽取(청취하다)'라는 단어 역시 거의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히 따진다면 이 단어는 시어(詩語)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옛날 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시 어휘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 실제로 어떤 단어들은 시어로 쓰일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혼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12. 불필요한 단어

‘這些加州的議員，他們都不贊成這個政策。(이 캘리포니아주의 의원들은, 그들은 모두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처럼 ‘他們’이 문법에 맞지 않게 쓰인 번역문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말을 할 때 이처럼 ‘他們’을 한 번 더 쓰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또한 글로 쓰였을 때 역시 사족 같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the other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y two friends……’를 ‘我的那兩個朋友，他們之間的其他重大不同之處……(나의 그 두 친구는, 그들 간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로 번역하기 쉬운데, 이 문장의 ‘他們’ 역시 사족이므로 반드시 빼야 한다〔또한 ‘之間’ 역시 부자연스럽다. 왜 ‘我們那兩個朋友的其他重大不同處……(우리 그 두 친구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라고 하지 않는 것일까?〕. 문언(文言)인 경우를 제외하고, ‘他的(그의)’, ‘他們的(그들의)’ 대신 ‘其(그의)’를 쓰는 것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문언에서는 ‘其’가 바로 ‘他們’, ‘他們的’의 뜻으로 쓰이므로, ‘他的’, ‘他們的’ 대신 ‘其’를 쓰는 것은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인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這個牧場主人，他每天天不亮就起來了。(이 목장 주인은, 그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다.), ‘醫生性子急而又忙碌不堪，他把病人得罪了。(의사는 성격이 급한데다가 또 너무 바빠서, 그는 환자들의 미움을 샀다.)’, 이 문장 역시 비슷한 예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대명사를 써서 ‘這個牧場主人是個勤勞的人，他……(이 목장 주인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략해도 상관없으며, 어떤 경우는 생략해야 문장이 오히려 한결 더 간결해진다.

13. '讓我們'

'Let's……'를 '讓我們……(우리로 하여금)'으로 번역하는 것은 '1:1 대응' 원칙의 오류를 범한 예이다. 사실 '讓我們'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Let's go'를 반드시 '讓我們走。(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다.)'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려면, '我們走吧。(우리 가자.)'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Let nobody think he is a coward.'를 꼭 '別讓任何人以爲他是懦夫。(어느 누구로 하여금 그를 겁쟁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라.)'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다. '別當他是孱頭。(그를 비겁쟁이 취급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언어 습관에 더 맞을 것이다〔만약 '孱頭(비겁쟁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懦夫(겁쟁이)'라고 해도 된다. 혹은 '誰也別當懦夫。(누구도 그를 겁쟁이 취급하지 마라.)'로 고쳐도 무방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4. 졸역의 영향

현재 일부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미 나쁜 번역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에 어떤 세련돼 보이는 사람이 'once again'을 '再一次(다시 한번)'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대부분이 다 이렇게 번역할 것이다〔이것은 결코 중국어가 아니다. 구어체로는 '又……一次(또……한번)'라고 해야 하고, 서면어로는 '再度(재차)'를 쓴다. 이것은 '再來一次(한 번 더)'와는 또 다른 말이다〕. 만약 어떤 이가 'Once again he wept.'를 '他又哭起來了。(그는 또 울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했다고 하자. 이때 또 다른 이는 오히려 이 번역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고, '他再一次哭了。(그는 다시 한번 울기 시작했다.)'라고 고쳐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15. 졸역의 효능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쁜 번역은, 단순히 어떤 의미에서만 본다면 좋은 번역일 수도 있다. 첫째, 이런 번역은 힘이 덜 든다. 보기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를 적응시키고 있으며,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런 번역은 경제적이다. 특히 짧은 고유명사를 음역할 경우는 의역한 것보다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다. 중국어 습관에 맞게 바꾸려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타협해서 마무리를 짓든가, 아니면 억지로 짜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골머리를 앓게 된다.

필자가 번역가들의 트집을 잡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번역가들은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신(魯迅)의 산문은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번역문은 그처럼 통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6. 원문 첨부

영어에 보면 '당신의 번역이 나무랄 데가 없으면 꼭 원문을 쓸 필요는 없다. 가서 독자들이 당신의 번역을 감탄하게 하든지, 당신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라.'는 말이 있다. 즉, 잘 된 번역은 원문을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문을 첨부하려는 유혹을 잘 뿌리쳐야 한다.

하지만 학술 용어인 경우는, 초벌 번역을 거쳐도 번역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장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럴 때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독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서적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인물, 오지 등을 표기할 때는 원문을 첨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외국 문장(불어, 독일어, 라틴어 등을 말함)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영어를 모르는 독자에게 굳이 당신이 그런 언어들을 알고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원문을 첨부시켜서는 안 된다.

17. 생략하기

약어나 신조어가 생소하다고 해서 원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는지는 번역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독자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8. 좋고 나쁜 영문 판별하기

번역가라면 반드시 영어의 나쁜 습관들과 오류들을 정확히 판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영어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 친구가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어 실력이 모자라기 때

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친구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경』이나 세익스피어의 명대사들은 대부분 이해하기가 쉽다. 영어를 구사하는 많은 사람들(영국인, 미국인을 포함한 독일인, 프랑스인, 필리핀인 등이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훌륭한 영어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문기자나 대작가들은 문장상의 금기를 깨고 고의적으로 뜻을 모호하게 만들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 영문을 써낸다. 이런 문장을 접했을 때 번역가들은 분석을 거쳐 그 뜻을 분명하게 해석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하기 쉬운 중국어로 번역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he King's English*』를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읽기가 너무 어렵다. 반면, Sir Ernest Gowers의 『*The Complete Plain Words*』는 알기 쉽게 써졌으며, 또한 출판된 지도 오래지 않아 더욱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C. Brontë, Dickens, Macauley가 범했던 영문의 많은 오류들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오류는 어쨌든 오류이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그가 범한 오류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 '證明', '顯示'

영어에서는 사물을 주어로 하고, 그 뒤에 'show', 'illustrate', 'indicate', 'provide', 'prove' 등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번역가는 대부분 'This proves that he is wrong.'을 '這證明了他錯了。(이것은 그가 틀렸음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편리성만 따진 채 그냥 번역문제로 번역해 버린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대로 한다면 이 문장은 '(由此)可見他錯了。(〈이렇기 때문에〉 그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바꿔야 맞다. 또한 'His failure

in duty shows he is not qualified for the job.'을 그냥 '他的失敗顯示了他沒有資格做這件事。(그의 실패는 그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음을 나타냈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문장도 '照他失職來看, 他……(그가 실직한 것으로 보아, 그는……)'라고 고쳐야 우리의 언어 습관에 맞는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It illustrates that we are well prepared.'는 '這表明了我們准備充分。(이것은 우리의 준비가 충분함을 나타낸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可見我們准備得很充分。(우리가 충분히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필자가 보기에 '顯示(나타내다)'는 나날이 그 위력이 커지면서 창작할 때도 많이 쓰여, 이제는 이미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쩌면 우리의 언어가 지금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글의 정교함을 따진다면, 당분간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 '中間', '在……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between'은 정말 골치 아픈 영어 단어이다. 우리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번역문을 쓸 때가 있는데, 이 단어의 책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There is no secret between you and me'를 '你我中間沒有秘密。(너와 나 중간에 비밀은 없어.)'라고 번역하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 문장은 반드시 '我們之間(우리 사이에)'이라고 바꿔 써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people of his generation……'을 '在他那一代的人之中……(그 사람이 살던 시대 사람들 중에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between'이 없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中間(중간에)', '之間(중에)'을 써서 번역하는 것이다. 왜 '他那一代的人……(그 사람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most of us'를 왜 '我們中間多數人(우리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일까? 사실 이 문장은 '多數人(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大部分的人(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된다〔'我們大部分(우리 대부분)'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between'처럼 골치 아픈 것이 바로 'in all things'라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在一切事情上(모든 일에서)'이라고 번역하기가 쉽다.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凡事(모든 일)'라고 하는 것이 간단명료하면서 우리 언어 습관에도 더 맞는 표현이다. '在……下'를 쓸 때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在這種情形之下(이런 상황 하에서)'를 그냥 '這種情形(이런 상황)'이라고만 해도 되는 것처럼, 사실 어떤 경우에서는 '在……下'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因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因之(그로 인해)'를 쓰는데 구어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문법학자인 양수달(楊樹達)이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물론 믿음이 가긴 하지만, 고명개(高名凱)의 『한어어법론(漢語語法論)』에서는 인과 관계를 설명할 때 '因此(그러므로)', '因爲(～때문에)'만 예로 들었을 뿐, '因之'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어체로 쓰인 '因此'는 극본『월하(月下)』와 『낙타상자(駱駝祥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필자가 알고 있는 문언 구조 중 '因之'가 사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國因之而亡, 事因之而敗。(나라는 그로 인해 망하고, 일은 그로 인해 패한다.)', 이 보다 더 이른 시기의 백화 중『홍루몽』을 보면, 제29회의 '這會子鬧起來都不管了, 因此將二人連罵帶說, 教訓了一頓。(이런 소동이 일어나도록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대부인은 한참 호되게 그들을 꾸짖고 훈계를 했다.)'과, 제30회의 '話說林黛玉……因此日夜悶悶, 如有所失。(임대옥

은……그러다 보니 밤낮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같이 마음이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등과 같이 '因此'가 자주 쓰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단지 '필자'의 견해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 '견해' 또한 단지 '견해'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어쩌면 '因之'가 서면어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 백화문에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경우는 '因之'를 '所以(그래서)'로 바꿔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

22. '足夠'

'enough'는 정말 골치 아픈 단어이다. 이 단어 자체가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번역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足够的(족하다)'라는 단어만 보면 걱정이 앞선다.

'He has enough money to support his family.'를 '他有足够的錢養家活口。(그는 집안 식구들을 돌보기에 족한 돈이 있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enough'는 대부분 현대 중국어의 '充足(충분하다)' 혹은 '充分(충분하다)'으로 번역되므로, 이 문장은 '他的錢够養家了。(그의 돈은 집안 식구들을 돌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야 중국어다운 표현이 된다. 그리고 'There is enough food for everybody.'는 '大家的食物都充足。(모든 사람들의 식량이 충분하다.)' [혹은 '够吃(먹기에 충분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3. '通過'

이미 '영문자(英文字)' 장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through'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Students are chosen by examination in technical schools……'라는 문장에는 비록 'through'라는 말이 없긴 하지만, 이것을 '學生由工業學校通過考試制度選拔……(학생은 공업학교의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라고 번역할 수 있다〔이 문장은 또한 '學生由工業學校考試選拔。(학생은 공업학교 시험에 의해 선발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는 'by'를 '藉着(의지하다)', '通過(통과하다)'라고 번역해서, 'by eloquence'를 '藉着口才(언변에 의지해)'로, 'through negotiations'를 '通過交涉(교섭을 통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모두 중국어가 아니다. 이런 영문을 번역할 때는 단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냥 '某人口才好, 把事辦通了。(어떤 사람은 언변이 좋아 일을 성사시켰다.)', '交涉之後, 局勢已經松弛。(교섭이 끝난 후 상황은 이미 좋아졌다.)' 등으로 번역하면 된다. 중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하나는 인과를 나타내려 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상황을 설명해서 독자 스스로가 그것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4. 기타

전에 어떤 중국영화에서 한 소년이 소녀에게 '讓我有這個光榮送你回去。(나로 하여금 너를 바래다 줄 수 있는 영광이 있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이 번역 덕분에 어쩌면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말을 자주 쓰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온 몸에 소름이 돋았었다.

‘love-making’을 ‘做愛(성교하다)’ 혹은 ‘造愛(성교하다)’라고 번역한다면 힘이 덜 든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생소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중국어에는 아직 이 말을 편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런 행동의 단어는『요재지이(聊齋志异)』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어쨌든 ‘造愛’라고는 하지 않는다.

‘bride client’를 ‘新娘當事人(신부인 당사자)’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이처럼 명사를 형용사화 하는 것은 중국어 습관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다. ‘當事人(당사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언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밝힌다. 따라서 ‘當事人是新娘(당사자는 신부이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어 표현이다(만약 다음 문장에 ‘이 신부는 어찌어찌하다’등과 같은 다른 말이 있으면, 다르게 해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have a commitment’를 ‘作出承擔(담당해내다)’이라고 번역한다면 뜻은 맞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중국어가 아니다. 사실 이 문장은 ‘負起了責任〈要做一件事等等〉(책임을 맡다〈일을 하고자 하다 등등〉)’이라는 뜻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연금(義捐金)을 모금하라고 했고, 당신이 바로 승낙하고자 한다면 ‘have a commitment.’라고 하면 된다. 또한 여러 학술단체에서 당신에게 강연을 부탁해 왔을 때, 당신이 그들에게 모두 ‘좋습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have quite a lot of commitments.’라고 하면 된다. 이것을 어떻게 ‘作出承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達成目的(목적을 달성하다)’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目的(목적)’는 ‘達到(도달하다)’와만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達成(달성하다)’이 날로 세력을 얻으면서 ‘達到’를 밀어내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成(이루다)’은 ‘事(일)’와 호응이 되지만, ‘達(다다르다)’는 ‘事’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達成’은 근본적으로 좋은 단어라 할 수 없다. ‘達成協議(협상을 달성했다)’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to come to an agreement.’를 번역한 문장일 것이다. 사실 이 문장은 ‘訂了約(약속했다)’, ‘協議好了(협상됐다)’라는 뜻이다.

‘受到損失(손해를 입다)’, ‘有了損失(손해가 있다)’라는 표현은 모두 괜찮지만, ‘發生損失(손해가 발생하다)’에서 ‘發生(발생하다)’은 부자연스럽다. 요즘 들어 ‘發展(발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하다)', '發出(보내다)' 등 '發' 자가 들어간 이음절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두 단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너무 남용되거나 잘 못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鬪爭發展到波蘭。(분쟁이 폴란드까지 발전되었다.)'은 잘못된 문장이다. '發展'을 아무데나 함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문장은 '鬪爭蔓延到波蘭。(분쟁이 폴란드까지 만연되었다.)'이라고 해야 한다.

'advice to young men.'을 '向年輕人發出的忠告。(젊은이에게 보내는 충고)'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發出通告(통지를 보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忠告(충고)'는 '發出(보내다)'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給年輕的人忠告。(젊은 사람에게 충고하다.)' 혹은 '奉勸年輕的人。(젊은 사람에게 권고하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發出'라는 단어를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사용하는 것 같다〔'忠告'는 문제가 많은 단어이다. 이 단어가 쓰이는 문장의 95% 이상은 '提出意見(의견을 제시하다)'으로 고쳐야 한다. 또한 '年輕人(젊은이)'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다. 이 단어는 '青年(청년)'이나 '年輕的人(젊은 사람)'으로 고쳐야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nothing really calamitous had happened.'를 '幷沒有蒙受實際的災禍。(실제적인 피해는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번역했을 때, 이 문장의 '蒙受(받다)'나 '實際(실제)'는 모두 중국어다운 표현이 아니다. 왜 그냥 간단하게 '幷沒有碰到眞正的禍事。(진짜 피해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일까?

'insist that'을 '堅持(견지하다)'라고만 번역하는 것은 죽은 번역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insist'를 '認定(인정하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堅持要你。(너를 원하는 것을 견지한다.)'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반드시 '硬要你。(정말 너를 원한다.)'로 바꿔 써야 한다.

'在一次試驗中, 一位生物學者發見……(한 차례 실험 중 한 생물학자가……을 발견했다)', 이 번역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순을 조금 바꿔서 '有一位生物學者做試驗, 發見……(한 생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을 발견했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어 습관에 맞는 표현이다〔여기서 '見'은 '現(xiàn)'으로 읽어야 하는 글자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發現'을 더 많이 사용한다〕.

'There is a great temptation to tell a lie when we are wrong.'이라는 문장을 우리는, '當我們錯的時候，有一個重大的誘惑力促使我們說謊。(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주 큰 유혹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긴다.)'이라고 번역하기 쉽다. 하지만 이 문장을 중국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더 중국어다운 표현으로 고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만약 이 문장을 '我們錯了就忍不住扯謊。(우리는 잘못을 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이라고 하면 어떨까?

'I forced myself to read.'를 '我迫使自己讀書。(나는 스스로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한다.)'라고 번역했을 때, 여기서 '迫使(강요하다)'는 정확한 중국어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장은 '我逼(着)自己讀書。(나는 스스로에게 책을 읽으라고 다그친다.)'라고 해야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他不肯來，我逼着他來。(그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에게 오라고 졸랐다.)'는 중국어가 맞다. 하지만 '……我迫使他來(내가 그에게 오라고 강요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외국어식 문장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迫使'의 세력이 아주 강해져서, '逼着'를 밀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The horrible smell makes this house nearly uninhabitable.'을 보통 '這可怕的味道使這所房屋接近不可居住的程度。(이 무서운 냄새는 이 집으로 하여금 접근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번역하고 싶어지는데, 이 문장은 'to the extent that……(……할 정도)'을 더 번역한 것이다〔이 문장은 '那股味道難聞极了，差不多叫人沒法住在這間屋里。(사람이 이 방안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 냄새는 너무 지독했다.)'라고 바꿀 수 있다〕.

'For more information is still needed.'를 '需要遠較現在者爲多的知識。(현재보다 비교적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번역하면, 부자연스럽고 또 난잡한 느낌이 든다. 이 문장은 그냥 '知識還差得遠。(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you started a question.’은 ‘你開始問了一個問題。(당신은 한 가지 문제를 묻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你提出了一個問題。(당신이 한 가지 문제를 내놓았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克服(극복하다)’ 역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가 된 것 같다. ‘to overcome these cold facts.’를 ‘克服這些冷酷的事實。(이처럼 냉혹한 사실을 극복하다.)’라고 번역하기 쉽다. 그런데 ‘克服(극복하다)’를 어떻게 ‘事實(사실)’와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원문의 뜻은 ‘克服這些事實上難應付的困難。(사실상 대응하기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다.)’ 정도가 될 것 같다.

‘Economic growth’를 ‘經濟成長(경제성장)’이라고 번역한다면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번역이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외국식 표현’인 ‘經濟發展(경제발전)’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이 말은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피부색도 ‘황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經濟發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經濟成長’을 ‘經濟發展’으로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중국의 중국어*

대전제: 영어를 꼭 중국어답게 번역해야 하는가?

일반 사람들은 중국어다운 번역문을 좋아한다. 그래야 보기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역가들은 '번역은 번역일 뿐 창작이 아니다'라는 이론을 펼친다. 다시 말해, 보기에 편한 것을 원한다면 직접 원문을 보라는 것이다. 『성경』 학자 또한 그들만의 이론이 있다. 그 당시 성 베드로의 그리스 문자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몇 세기가 흐르면서 모두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영국 19세기의 대시인이자 비평가인 Matthew Arnold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강연회' 사회를 맡은 자리에서 Francis W. Newman이 번역한 『*Homer*』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쳐 강연을 했는데, 모두 아주 유명하다. 그 중 네 번째 강연에서 그는 Newman이 새로 표기한 그리스 인명은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Newman을 호평하는 비평가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관용적이어야 했으며, 이렇게 고침으로써 후세대 사람들이 그 새로운 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말한다. 번역문이 완벽한 중국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일부 글자와 단어의 표현방식이 지금은 어쩌면 너무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자는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말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현재 많은 글들은 중국 글자로 쓰이기는 했지만, 사실 중국어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어'라고 제목을 붙였다.

하지만 번역가들은 요리사처럼 비린 생선이나 고기, 더러운 채소들을 깨끗이 씻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여야 한다. 유럽식 중국어가 제일 '삼키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매일 깨끗하지 않고 삼키기 힘든 음식을 많이 먹다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리사가 매번 '입맛에 맞지 않나요? 늘 하던 방식대로 만들었는데, 더 드시다 보면 괜찮으실 거예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재료를 깨끗이 씻고, 간을 잘 맞춰서 알맞게 조리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번역은 중국어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필자가 쓰고 있는 중국어가 필자의 조부 세대에서 쓰던, 심지어 필자의 부친 세대가 쓰던 중국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해금(海禁)* 실시 이전의 중국어는 쓸 줄 모른다. 젊은이들의 글을 고쳐주다 보면, 그들의 중국어가 중국어 같지 않다고 말하는 필자의 중국어도 정통 중국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중국어를 고치면서 2, 30년 전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필자에게 '철저하지 못하다, 비합리적이다, 지나치게 구습에 얽매였다'고 비평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다시 2, 30년이 지나면 지금의 중국어가 표준 중국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20대가 지금 필자가 중국어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국어를 가지고 그 때의 2, 30대 사람들이 쓴 중국어를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2, 30년 전 중국어가 아무래도 지금의 중국어보다 조금은 낫기 때문에, 필자는 우리가 중국어를 조금 더 아끼고 보호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중국어를 '빛나게 다듬고' 눈에 익숙해지도록 하기까지 2, 30년 동안 노력해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국어를 잘 보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습에 얽매이는 것이 진보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급진 역시 중국어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다지 좋지 않은 단어와 표현들은 비록 누군가가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비교적 매끄럽고 정교한 것만 남게 된다. 현재 일반인들이

---

* 역주: 명・청 시대에 실시했던 항해에 관한 금령(禁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모두 한(漢)·당(唐) 시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중국 문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영문인 경우, 800년 전 책은 전문적으로 고대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은 약 1, 2백년 사이에 사전학(辭典學)이 발달되고, 사전이 보편화 되면서, 철자법, 문법이 이미 대부분 안정되어 함부로 변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영국, 미국의 문법, 철자법, 단어의 뜻 역시 대부분 비슷해졌다. 언어와 문자는 서로의 이해에 기초하며, 인류의 지혜로운 경험을 기록하는 도구이다. 현재 기계 부품들은 모두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 치수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언어는 어떠하겠는가? 발전하는 것은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래 쓸모없는 새로운 술책은 그저 사람들에게 서로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술책을 첨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문자는 교통경찰의 손동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손동작 하나 하나마다 각각의 뜻이 있음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 손동작으로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운전자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큰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운전자가 '나는 그 손동작이 지나가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정지시키거나, 운전자에게 전진하라고 하는 뜻을 같은 손동작 하나로 지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호의 기능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한번은 필자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단어에는 이러 이러한 뜻이 있다면서 쓰기에, 필자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제기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문자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가 훈고학(訓詁學) 부분에서 수많은 작업을 하고, 모두가 신중하게 글자를 사용하자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글자의 뜻에는 항상 이견(異見)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항상 도덕(道德)을 말하고 인의(仁義)를 강조해도, 모두의 행위가 그것들로 인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살인, 방화 등 온갖 나쁜 짓을 허락한다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중국어다운 문장인지 상관하지 않고 영문 그대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번역해도 된다면, 앞으로 중국어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 말한 내용은 사실 '중국어 문법', '수사', '오류' 각 장에서 말한 내용과 거의 같다. 그러므로 이번 장은 위의 세 장과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번역문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1. 'to me' 등등

영어권 사람들은 'to me……', 'To a man of his personality'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지만, 중국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To an honorable man, this was intolerable.'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對一個光榮的人來說，這是不能容忍的。(명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가 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장은 '這實在是有人格的人受不了的。(이것은 인격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누가 누구에 '대하여(對)'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就……來說(……입장에서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對英國說來，過去的中國是一個很好的顧客。(영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거의 중국은 매우 좋은 고객이었다.)', 사실 이 문장은 '過去的中國是英國的好顧客。(과거의 중국은 영국의 좋은 고객이었다.)'라고 해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해도 최소한 '在英國人眼中，過去的中國是他們的好顧客。(영국인이 보기에, 과거의 중국은 그들의 좋은 고객이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To the prize-fighters he was〈Iron Fist Joe〉, that rugged negro.'를 반드시

‘對職業拳手來說……(직업 권투선수에 대하여 말하자면……)’라는 문장 구조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그냥 ‘在職業拳手眼中, 他……(직업 권투선수가 보기에, 그는……)’라고 하면 된다.

‘I am happy with that explanation.’, 이 문장을 현대 번역문체로 바꾸면 ‘就(對)我而言, 那個解釋已經可以使我心滿意足了。(내 입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해석은 이미 나의 마음을 만족시켰어.)’가 된다. 이 문장에서 ‘就我而言’은 원문에 없는 ‘to me’, ‘for me’를 덧붙여 번역한 것이다. 이 문장도 외국어 냄새가 좀 나므로, ‘我覺得這個解釋已經很不錯了。(나는 이 해석이 이미 아주 좋다고 생각해.)’로 고쳐야 한다.

‘To him, this means luck.’을 ‘這(件事等)對他來說, 等于幸運。(이 일이 그에 대하여 말하면, 행운인 셈이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말 어색하다. 이 ‘일’이 ‘그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To him’은 ‘這(件事等)照他看來……(이 일은 그가 보기에……)’라고 번역해야 한다. 심지어는 ‘他覺得這是運氣。(그는 이것이 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직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to the musician’의 뜻 역시 음악가(musician)에 ‘대해서(對)’ 어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보기에’라고 해야 맞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他的生活對于我就是一個榜樣。(그의 생활은 나에 대하여 하나의 본보기다.)’이라는 번역문을 우리의 언어 습관대로 하면 ‘他的生活就是我的榜樣。(그의 생활은 곧 나의 본보기다.)’이라고 고칠 수 있다.

‘For me his principal genius lies in his capacity to make prose poetry.’를 꼭 ‘就我而言, 他的主要天才在于將散文變成詩。(내 입장에서 말하면, 그의 가장 큰 재능은 산문을 시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은 ‘照我看來, 他……(내가 보기에, 그의……)’라고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to me’, ‘for me’는 영어 문장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it’과 ‘them’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번역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更多’, ‘更好’……

‘越來越多的人(more and more people)在本鎭找到工作。(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이 문장은 영어식 중국어이다. ‘在本鎭找到工作的人, 越來越多了。(이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야 올바른 중국어 표현이 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영문은 매우 많다. 그리고 이런 영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사람 또한 아주 많다.

‘They couldn’t do it better.’를 ‘他們不能干得再好了。(그들은 더 이상 잘 할 수 없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 문장은 ‘他們干得再好也沒有了。(그들은 최고로 잘했다.)’라고 바꿔야 한다(이 문장을 ‘最好也沒有了。’라고 써서는 안 된다).

‘More guests came than I could count.’를 ‘客人來的比我所能計算的還多。(온 손님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영어식 표현이다. ‘客人來得很多, 我數都數不淸。(손님이 아주 많이 와서, 내가 다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이라고 해야 우리 언어 습관에 맞는 표현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ot much better’를 만약 ‘不比……更好多少(……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번역하면 약간 어색하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比……好不了多少(……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One of the best’를 ‘最好的……之一(최고의……중 하나)’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지만, ‘數一數二的……(손꼽히는)’, ‘頂兒尖兒的……(최고의)’, ‘屈指可數的(손꼽을 정도의)’, ‘少有的(별로 없는)’, ‘罕見的(보기 드문)’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근접한 표현이다.

‘He spent more money than he cared to.’를 ‘他花了多于他愿意花的錢。(그는 그가 쓰고자 하는 돈보다 더 많이 썼다.)’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필자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他花多了錢, 必有不甘。(그는 돈을 많이

써서 기분이 좋지 않다.)'으로 번역할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긴 문장에서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다. 잠시 예를 들어보자.

> The major cause of his poverty was that he spent more money than be cared to earn.
>
> 他貧窮的主要原因是他支出多于他愿意賺的。
> (그가 빈곤한 주요인은 그의 지출이 그가 벌고자 하는 돈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기는 했지만,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He began to observe the patients more closely.'에서 'more'는 번역하지 않아도 되며, 그냥 '很(아주)'정도로 번역하면 된다.

'more'는 물론 '更多(더 많은)'라는 뜻이다. 하지만 번역문에 '更多'가 많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to raise more money.'를 꼭 '籌募更多的錢。(계획을 세워 더 많은 돈을 모으다.)'이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多籌点錢。(돈을 더 많이 모으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more people would be injured.'를 '更多的人會受傷(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좋지 않다. '受傷的人就更多了。(부상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고 해야 더욱 자연스러운 중국어가 된다.

'He has more opportunity to win.'을 '他有更好機會贏。(그는 이길 더 좋은 기회가 있다.)'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영문은 '他更可以贏。(그는 이길 확률이 더 있다.)'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3. 기존의 중국어

몇 해 전에 본 문장인데(안타깝게도 당시에 기록해 놓지 않아 지금 짜 맞춘다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남미 땅을 〔'land reform'은 '土地改良(토지개량)'으로 쉽게 번역된다〕 개혁한다는 내용이었다. 영문은 두세 줄로 개혁의 목적을 설명했고, 중국어 역시 두세 줄로 번역해 놓았다. 의미도 명확하고 어색한 부분도 없어서, 외국문장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을 설명해 놓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하는 사람은 중·영문 이외에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등등에 밝아야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다. '경자유기전'은 중국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대다수 중국인들이 금방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두세 줄로 자세히 번역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번역들을 주위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좋은 번역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어에는 아주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잘 되어 있는 번역도 다른 사람이 다시 한 번 고쳐주면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mall savings'를 그대로 번역하면 당연히 '微小的積蓄(아주 작은 저축)'라고 해야 하지만, 우리는 '些微積蓄(약간의 저축)'라고 말한다. 다시 좀 더 구어체다운 표현으로 하자면 '有一點點積蓄(아주 적은 저축)'라고 할 수 있다.

'at the slightest touch'를 '只受到最輕微的碰撞(제일 작은 충격을 받기만 해도)'이라고 번역하기 쉬운데, '只要輕輕碰一下(가볍게 부딪히기만 하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어습관에 맞다.

'He gazed around furtively.'를 '他鬼鬼祟祟地四處張望。(그는 몰래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사방을 둘러보았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他鬼鬼祟祟地東張西望。(그는 몰래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

* 역주: 경작하는 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

‘good parents’를 ‘好父母(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天下無不是之父母。(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라는 말을 써왔는데, 물론 지금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또한 ‘好父母’라는 말도 ‘賢明的父母(현명한 부모)’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parents’와 ‘children’을 나란히 썼을 때, ‘父母(부모)’를 ‘家長(학부모)’으로 고치는 것이 ‘子女(자녀)’와 상대적으로 어감이 맞으며, 기존의 중국어를 사용하는 예가 된다.

원래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이었는데, 번역되면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정을 거치면, 어색한 부분을 충분히 고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英國和德國的軍人(영국과 독일의 군인)’은 ‘英德兩國軍人(영・독 두 나라 군인)’으로 고칠 수 있고, ‘一場談話(한차례 담화)’는 ‘一席話(일장연설)’로, ‘這個冬天過得快〈the winter flew by〉(이 겨울은 참 빨리 지나간다)’는 ‘這一年冬天過得快(올해 겨울은 참 빨리 지나간다)’로, ‘如下數點〈as follows〉(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은 ‘下列數點(하기와 같은 몇 가지 점)’으로, ‘四至五次〈four or five times〉(4번에서 5번)’는 ‘四五次(네다섯 번)’로, ‘丈夫和妻子〈husband and wife〉(남편과 아내)’는 ‘夫妻(부부)’로 고칠 수 있다［‘父親和兒子(부친과 아들)’ 등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他是正大的，他又是光明的。(그는 공명한 사람이다, 그는 또한 정대한 사람이다)’처럼 문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간단하게 ‘正大光明(공명정대하다)’이라고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白和粉紅色(백과 분홍색)’처럼 단어를 줄여서 쓰지 않으므로 ‘白色、粉紅色(흰색, 분홍색)’로 바꿔 써야 한다.

‘millions of dollars are wasted annually.’를 ‘造成金錢的每年損失，數目甚巨。(금전의 매년 손실을 초래했으며, 수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번역해도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每年損失的金錢不計其數。(매년 손실되는 금액이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혹은 좀 더 서면어적인 표현으로 ‘年耗金錢不貲。(연간 지출액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해도 좋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4. 최고급(Superlative Degree)

‘the loudest rattling I have ever heard, the most capable man I have ever seen, He bought the two largest rings he could finds.’, 이와 같이 어기가 좀 강한 영문을 접하게 되면 번역가들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這是歷來我聽到的最響的嘎啦嘎啦聲。(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들어봤던 제일 큰 ‘쾅’ 소리이다)’, ‘我歷來看到的最能干的人(내가 이제까지 보았던 제일 능력 있는 사람)’, ‘他買了他所能發現的最大戒指。(그는 그가 발견할 수 있는 제일 큰 반지를 샀다.)’라고 번역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 문장은 읽기에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중국어 같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만약 필자가 이런 문장을 번역해야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필자처럼 표준어를 배운 적이 있는 남부사람이라면 대략 ‘這樣高的嘎啦嘎啦聲，我還是第一次聽到呢。(이렇게 큰 ‘쾅’ 소리는, 나는 난생 처음 들어본다.)’, 혹은 ‘……我從來都沒有聽到過(……를 나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這樣能幹的人，我還是第一次〈或‘我從來都沒有’〉見到過。(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난생 처음 본다〈혹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他在市面上找到兩只最大的戒指，買了下來。(그는 시장에서 제일 큰 반지 두 개를 찾게 되자 사들였다.)’ 등으로 말할 것 같다.

‘是我所見到的……的(내가 보았던……것)’는 ‘這樣……的……我生平還是第一次見到(이런……것은 내 평생 처음 본다)’라고 해야 중국어다운 표현이다.

참고로 말하면, ‘歷來(이제까지)’라는 단어는 현재 위와 같은 문장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쓰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歷來’는 ‘從來(지금까지)’라는 뜻으로, ‘歷來文人學士(지금까지의 문인학사)’, ‘歷來變革(지금까지의 변혁)’와 같이 명사 앞(attributive)에만 쓸 수 있고, 서술(predicative) 부사는 될 수 없다.

‘我生平教過的最用功的學生(내 평생 가르친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은 ‘我生平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生中最用功的一個(내 평생의 학생 중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라고 해야 한다.

'This is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we are faced with.'를 '這是我們所遇到的最常見的問題。(이것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가장 많이 보는 문제이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這是我們最常碰到的問題。(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다.)'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This is the longest voyage yet for him.'이라는 문장도 '這是他所曾做過的最遠的航行。(이것은 그가 했던 가장 먼 항해이다.)'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며, 그냥 '這是他最遠的航行。(이것은 그의 가장 먼 항해이다)'이라고 해야 한다.

5. 명사의 응용

중국어에서 명사의 응용은 영어처럼 그렇게 광범위하지도 않거니와, 자연스럽지도 않다 (비록 영문에서 명사의 사용이 많긴 하지만, 수사학자(修辭學者)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예를 들어, 'All his efforts were dedicated to the downfall of the enemy and his regaining of power in the party.'라는 문장을 영문 문장법에 따라 번역하면 '他全部的努力在求敵人的瓦解及自己在党內的重握權力。(그는 모든 노력을 적의 와해와 자신이 당내에서의 권력을 재장악하는 데 쏟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역도 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읽기에 부자연스럽고 중국어답지도 않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

> 他全部的努力在使敵人瓦解，他自己重新在党內掌權。
> (그는 적을 와해시키고, 자신이 다시 당내에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리고 'He, who preached universal brotherhood, would have like this idea.'를 '提倡天下一家的他一定會喜歡這個主意。(온 세상의 화목을 외치는 그는 틀림없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니다. 이 문장은 '他是提倡天下一家的人, 一定……(그는 온 세상의 화목을 외치는 사람이므로, 틀림없이……)'으로 고쳐야 한다.

'Those changes would not weaken the institution's essential value.'를 '那些更改不會削弱這個機構的主要价值。(그러한 변동은 이 기관의 주요 가치를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번역한다면, 이 문장에서는 '更改'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更改以後, 這個機構的主要价值不致受到影響。(변동 이후, 이 기관의 주요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concerned about his domination of the……'라는 문장에서 'domination'이 비록 명사이고 'he'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나타낼 필요는 없다. '……對于他在……方面之占優勢感到不安。(……그가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불안해졌다)', 이 문장에서 '之'는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했을 때 오히려 더 중국어다운 문장이 된다〔'占優勢(우위를 차지하다)' 뒤에 '這一點(이 점)'을 덧붙여도 된다〕.

'Later I added'를 '後來我又做了補充說……(후에 나는 다시 보충을 해서……라고 말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영어식 습관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오히려 원문의 순서대로 단어를 번역해서 '後來我又補充道。(후에 나는 다시 보충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不能證明此種理由的正确。(이러한 이유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번역문은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문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약간 '외국어 냄새'가 나서 중국어답지는 않다.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這〈個說法、解釋等〉靠不住〈或'不可靠'〉。(이 〈말, 해석 등〉 것은 믿음이 안 간다〈혹은 '믿을 수가 없다'〉.)'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어 문법(中文語法)' 장의 '명사단어(名詞短語)'를 참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기 바란다]

6. 대명사

'They are good questions, because they call for thought-provoking answers.'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하지만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상한 중국어로 바뀌기 쉽다('they', 이 단어는 '번역이라는 바다 속의 상어 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가들은 문장에서 'they'가 나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신중을 기해서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한 장(章)을 별도로 할애해 자세히 다루었다). '它們是好的問題，因爲它們需要對方做出激發思想的回答。(그것들은 좋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대방이 잘 생각해야 하는 대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는 원문에 아주 충실한 문장이다. 이와 같은 번역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 문장을 독자들이 읽었을 때 두 번 나온 '它們(그것들)'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다. 만약 문장을 보지 않고 듣기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욱 알 수 없을 것이다. '好的問題(좋은 문제)', '做出……的回答(……한 대답을 해내다)'는 중국어 같지 않다. 만약 영문을 보지 않은 중국인이 이 뜻을 표현한다면, '這些問題問得很好，要回答就要好好動一下腦筋〈思想一番〉。(이런 질문 정말 좋은데요, 대답하려면 머리를 잘 써야 하니까요〈잘 생각해봐야 하니까요〉.)'이라고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명사(代名詞)'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형용사

필자가 생각하기에, 영어 명사는 아주 힘 센 장사 같다. 어깨에 많은 형용사, 부사, 심지어는 짧은 문장까지 짊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曾經研究過古代的動物的不同的生活环境的某奧國動物學家說……(예전에 고대의 동물의 다른 생활환경을 연구했던 모 오스트리아 동물학자가 말하길……)'라는 문장에서, 네 번 나온 '的'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많은 단어로 한 사람을 형용해 놓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으면, 중국 독자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반면 원문 'An Austrian, zoologist, who has studied different environment of living of ancient animals, said……'를 보면, 읽기에 아주 자연스럽다. 이런 문장을 번역할 때는 최대한 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문장을 잘 끊어야 한다. 앞에서 예로 든 문장을 '奧國有一位動物學家，是個研究過古代動物不同的生活环境的人，他說……(오스트리아에 한 동물학자가 있는데, 고대 동물의 각기 다른 생활환경을 연구했던 학자이다. 그가 말하길……)'라고 번역해도 원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He plays upon the restlessness and frustr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boys with long hair like country girls, and girls reluctant to go home before midnight, both without faith in anything.', 이 문장은 '他利用男孩子留着長頭髮像鄉下姑娘，女孩子在半夜以前不愿意回家，男女都對任何事毫無信心的年輕一代的不安定和受挫，來進行煽惑。(그는 남자애가 시골 처녀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자애는 심야가 되기 전에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는 젊은 세대의 불안정과 좌절을 이용하여 유혹했다.)'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어는 너무 길어서 숨쉬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한번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려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끊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他利用年輕一代不安定和受挫的心情來煽惑，這一代的男孩子頭髮長得像鄉下姑娘，女孩子在半夜以前不愿意回家，他們對任何事都沒有信心。’

(그는 젊은 세대의 불안정과 좌절감을 이용하여 유혹했다. 이 시기의 남자애들은 시골 처녀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자애들은 심야가 되기 전에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다.)

8. 문장 끊기

영문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항상 중국어 습관에 맞게 영문을 몇 문장으로 잘 끊어야한다. ‘He mobilized his army for a bloody civil war.’를 ‘他把自己的軍隊爲血腥的內戰而動員起來。(그는 자신의 군대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위해 동원시켰다.)’라고 번역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장이 너무 긴 것 같고, 중간과 뒷부분의 글자 수가 너무 많으므로 ‘爲……而(……위해서)’ 구조를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爲自由而戰(자유를 위해 싸우다)’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이 문장을 ‘他把自己的軍隊動員起來，打血醒的內戰。(그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일으켰다.)’으로 바꾼다면 독자들이 읽기에 훨씬 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遇到一個自称是貴族管家的兒子的靑年。(자칭 귀족의 집사 아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났다.)’이라는 번역문 역시 너무 길다. ‘可段則段(끊을 수 있으면 끊어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장은 ‘뚝 잘라’ ‘遇到一個靑年，自称是貴族管家的兒子(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칭 귀족의 집사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바꿀 수 있다.

‘By rare courage, perseverance, shrewdness, thorough investigation an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lanning, he was at last able to succeed.', 이 문장은 '由于他的非常勇敢、堅毅、徹底調查、苦幹和計劃, 他終于能成了功。(그의 아주 용감함, 의연함, 철저한 조사, 성실함과 계획 때문에, 그는 마침내 성공했다.)'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명사가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읽는 이들이 쉽게 피곤해진다. 중국어 언어 습관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런 문장을 여러 문장으로 끊어서 편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他爲人非常勇敢堅毅, 查究事情徹底, 肯苦幹, 有計劃, 凭這些特點, 終于能够成功。(그는 용감하고 의연한 사람이다. 또한 일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계획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그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이라고 바꿔야 한다.

9. 문장유형 바꾸기

'I cannot recall his ever refusing to help a friend.'를 직역하면 '我記不得他曾拒絶過帮助一位朋友。(나는 그가 예전에 친구를 돕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부정사를 '記得(기억하다)'와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拒絶(거절하다)'와 같이 써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 문장을 중국어처럼 번역하려면 '照我所知道的, 朋友要帮忙, 他從來沒回過。(내가 알기로, 친구가 부탁했을 때 그는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로 고쳐야 한다. 아래 문장은 좀 복잡하므로, 정리 작업을 좀 더 해야 한다.

> I cannot recall his ever uttering a word that was purely matter-of-fact, and not deeply drawn from his innermost.

이 문장을 '我記不得他曾說過一句純粹乏味的話, 而不是從他心坎中發出來的。(나는

그가 전에 순전히 무미건조한 말을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중국 글자를 사용하긴 했지만 영어식 문장이다. 이 문장을 만약 필자가 번역한다면, '照我所曉得的, 他從沒有說過一句完全乏味的話; 每一句話總是從心坎里掏出來的。(내가 알기로, 그는 한번도 완전히 무미건조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10. 나이 넣기

미국인들이 'He is a 45-year old convict named John.'이라고 말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지만 이 문장을 '他是四十五歲的名叫約瀚的罪犯。(그는 45세의 존이라고 하는 범죄자다.)'이라고 번역하면 좀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 앞에 나이를 써서 수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은 '他是罪犯, 四十五歲, 名叫約瀚。(그는 범죄자인데, 나이는 45세이고 이름은 존이다.)'이라고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만약 영어 문장이 너무 길고, 앞부분에 많은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면, '45세'를 쉽게 집어넣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사람의 나이를 적절한 자리에 배치시킬 수 있게 된다.

11. 기타

'The university authority could find no scholar to teach this subject in the language he speaks.'를 '大學當局找不到一個能用他所說的語言教這科的教授。(대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당국은 그가 말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찾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문장이 너무 난잡해진다. 이 문장은 '大學當局找不到一位說他那種語言的教授，來教這一科。(대학 당국은 그가 쓰는 언어를 할 줄 알면서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찾지 못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But you can take the word of John that……'을 보통 '但是你可以相信約翰的話，他說……(하지만 당신 존의 말을 믿어도 돼요, 그가 말하길……)'라고 번역하기 쉬운데, 이것은 중국어가 아니다. '可是約翰說……這話你可以相信(하지만 존이 ……라고 한 말, 당신 믿어도 돼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No one had promised any man that life is easy here.'를 우리는 '沒有一個人答應過任何人，這里生活容易。(어떤 이에게도 이곳의 생활이 쉽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로 번역하기 쉽다. 하지만 이 문장은 '誰也沒有說這里的日子好過。(누구도 이곳의 생활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야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어떤 경우는 원문의 문법에 따라 번역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장인 경우, 원문 문법에 따라 그대로 번역하면 문장이 너무 길어진다.

'If the revolution fails, no matter what I do it won't make things better.'는 '如果革命失敗，不管我做什麽，都不能使情况改好。(만약 혁명이 실패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상황을 좋게 바꿀 수 없을 것이다.)'라고 번역하기 쉽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지 중국어 같지도 않다. 이 사람이 혁명당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말의 뜻은 '如果革命失敗，不管我怎麽補救，也沒有用處。(만약 혁명이 실패한다면,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가 될 것이다.

'Thus began the massacre.'를 '這就開始了那場屠殺。(이렇게 그 대량학살이 시작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중국어 습관에 맞지 않다. 일반적인 표현이 되려면, '那場屠殺就這樣開始了。(그 대량학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바꿔야 한다.

'That was what happened to me.'를 '我那天的遭遇是如此。(나의 그날의 처지는 이러했다.)라고 번역할 경우, '遭遇(처지)'라는 명사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는 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낌이 든다. 필자라면, '我那天碰到的情形就是這樣。(내가 그날 겪은 일의 정황은 이러했다.)'이라고 번역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운수가 좋음을 말하고자 한다면, '他的遭遇好(그의 상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

어떤 경우에는 번역가가 반드시 앞뒤 문장의 상황을 살펴 본 후에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to resist effectively.'라는 문장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抵抗得有效(저항이 효과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물론 뜻은 맞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이해도 잘 안 되고 부자연스럽다. 만약 우리가 이 뜻을 표현한다면, '抵抗得住(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There is no reason why he should come.'이라는 문장도 꼭 '他沒有理由來。(그는 올 이유가 없다.)'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다. 그냥 '他用不着來。(그는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된다.

'in about ten weeks'를 '在約有十個星期內(약 10주 안에)'로 번역하면 뭔가 조금 어색하다. 이것은 '十個星期左右(10주정도)'로 바꿔야 한다［하지만 만약 '他大約十個星期後就回來了。(그는 약 10주 후면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틀린 문장이 아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The hospital has witnessed many such things.'의 'witnessed'를 '見過(본적 있다)'로 오역해서, '医院已經見過很多類似的事情。(병원은 이미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본적 있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오직 사람만이 '볼(見)'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비록 일부 사람들이 무시하는 글자이긴 하지만 '有(있다)'라는 글자를 써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發生(발생하다)'은 '고상한' 단어이다. '使到約翰發生一點很小的麻煩。(존에게 아주 작은 폐를 조금 발생하게 했다.)'은 사실 '給約翰一點小的麻煩。(존에게 폐를 좀 끼쳤다.)'이라는 뜻이다. 이 두 문장의 글자 수를 비교해 봐도 뒷문장이 더 적다.

'His record shows how this could happen.'을 '他的記录表示這種事能發生的。(그의 기록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라고 번역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從他以往的記录看來，是會做這種事的。(그의 지난 기록들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자다.)'라고 바꿔야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대부분은 'in the foreseeable future.'라는 문장을 '可以預見的將來(예견할 수 있는 미래)'라고 번역하겠지만, 이것은 외국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문장이다. 그렇다. 중국에는 이러한 사고(思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표현도 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不多久……就(머지않아 곧……)', '總有一天會 (언젠가는……할 것이다)', '將來一定會(앞으로 반드시……할 것이다)', '遲早總會(조만간……할 것이다)' 등등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뜻을 표현할 방법이 있다. 만약 'This country will be independent in the foreseeable future.'라는 문장을 '這個國家不多久〈或'遲早'〉就會獨立的。(이 나라는 머지않아〈혹은 '조만간'〉 곧 독립할 것이다.)'라고 번역해도 원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처럼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국어 습관에 맞게 단어를 바꾸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만약 혹자가 '可以預見的將來'라고 쓸 것을 주장한다면 필자 역시 반대할 뜻은 없다.

그 밖에 이런저런 문장들을 살펴보면, 꽤 괜찮은 번역들도 있다. 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에 나열해 보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先生們(신사들)'은 중국어 습관상 '諸位先生(신사 여러분)'으로 고쳐야 한다.

'金錢不斷流入(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 'money flowed in'은 중국어로 '金錢源源而來(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自幼失去聽覺(어릴 때부터 청각을 잃어버렸다)'는 'deaf since childhood'를 맞게 번역하기는 했다. 하지만 '自幼失聰(어릴 때부터 귀가 멀었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다.

'投擲出去一塊石頭(돌멩이 하나를 던져 보냈다)'는 반드시 '丟了一塊石

頭出去(돌멩이 하나를 내던졌다)'로 바꿔야 한다.

'我的太太有一本帳簿在上面我給她記了上個月的帳(나의 아내에게는 위에 내가 그녀에게 기록해 준 지난달의 결산이 있는 장부 하나가 있다)', 이 문장은 반드시 '我太太有一本帳簿, 上面有我給她記的上個月的帳(내 아내한테 장부 한 권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그녀에게 기록해 준 지난달 결산이 있다)'이라고 바꿔야 한다.

'when and how to take risks'를 '何時及如何冒險(어느 때와 어떤 모험)'이라고 번역한 문장은 '冒險的時機和方法(모험의 시기와 방법)'로 바꿔야 한다.

'不脫離和社會的接触(사회와의 접촉을 끊지 않는다)'는 반드시 '不斷和社會接触(끊임없이 사회와 접촉하다)'로 바꿔야 한다.

'這件事需要不斷的推動和有良好的記憶力(이 일은 끊임없는 추진력과 양호함이 있는 기억력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너무 딱딱하다. 그러므로 '這件事需要不斷的推動, 而且做的人記憶力要好(이 일은 끊임없는 추진력이 필요하며, 일하는 사람의 기억력도 좋아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each action'을 '每一行動(매 행동)'으로 번역했다면 물론 틀린 번역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어 같기도 하다. 하지만 '一擧一動(행동 하나하나)'이라고 바꾸는 것이 중국어 습관에 더 맞는 표현이다.

'沒有受到幹擾而去(방해 받지 않고서 갔다)', 이 문장도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로는 '沒有人爲難就去了(괴롭히는 이 없이 갔다)'라고 해야 한다. 'interference'를 반드시 '幹擾(방해)'로 번역해야 하는 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아니다.

‘Later that day’를 ‘那天稍遲時候(그날 조금 지체되었을 때)’로 잘못 번역하기 쉽다. 하지만 이 문장은 ‘那天過了些時(그날 좀 늦은 시간에)’라고 해야 일반적인 표현이다.

‘building was nearing completion’이 반드시 ‘建筑正接近完成(건축이 완성에 막 근접했다)’으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快要落成(이제 곧 준공될 것이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문장유형

영국의 A.S.Hornby는 영어의 sentence patterns(문장유형)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인 『*A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Oxford)*』를 썼다. 또한 그는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라는 영어사전을 펴내 verb(동사)의 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는데, 우리 같은 외국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필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어의 문장유형이다. 예를 들어, '他比起他們這班人來好多了(그를 그들 반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주 좋다)' '他比他們這班人都好(그는 그들 반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좋다)', 이 중 첫 문장의 '好多了' 앞에는 '都'를 쓸 수 없으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가능하다. 이같이 다른 문장유형을 자주 혼동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참고할 만한 책이 없다.

예전 중국 사람들의 작문 방법은 고문을 통독하고 꾸준히 작문을 하면, 스승이 세심하게 고쳐주고 평가해 주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장유형을 익혔으므로, 따로 문장유형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현재 일부 사람들은 원래 중국어 기초가 약한데다가, 번역의 영향까지 받아서, 작문을 더 이상하게 한다. 자주 틀리게 쓰는 문장유형들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這樣的生氣，以致……(이러한 생기는……을 초래했다)', 이것은 영어식 문장유형이다.

'非等他……我就不……(그의……(을)를 기다리지 않으면, 나는……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我絶不(나는 절대……않는다)로 바꿔야 한다. '就'

는 '一等他……我就……(그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는 곧……한다)' 유형에서만 쓸 수 있다.

'最使人生氣不過(제일 사람을 몹시 화나게 한다)', '最'가 있으면 '不過'를 쓸 수 없다.

'最叫人生氣也沒有了(제일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最'를 '再'로 고쳐야 한다. 상해(上海)어에서는 '最'와 '再'의 음이 같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

'最好不過', '最'를 '再'로 바꿔서 '再好不過(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고 해야 한다.

'每來一次, 可以得到十塊錢(매 번 올 때마다, 10위안을 얻을 수 있다)', '可以' 앞에 '都'를 넣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不論身心兩方面, 都表現出非常的耐力(심신 두 방면을 막론하고, 모두 굉장한 참을성을 보였다)', '兩'을 '哪一'로 바꾸거나, '不論'을 빼야 한다.

'餓困和攻擊敵人的京都達三年之久(굶주리게 하고, 포위하며, 적군의 수도를 공격하는데 3년이 걸렸다)', 여기서 '和'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어에서는 '동사+동사+수사(受詞*)'식의 문장유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문장구조를 바꿔서 '使敵國的京城受餓、受困、被攻達三年之久。(적국의 수도를 포위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어 3년 동안 공격했다.)'로 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發起及

---

* 역주: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어떤 동작, 방식, 형태 혹은 성질 등 명사 성질이 있는 글자, 단어, 구.

控制民族運動(민족운동을 발기하고 통제하다)' 또한 어색하다. 이 문장은 반드시 '發起民族運動, 幷加以控制(민족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통제하다)'라고 해야 한다(여기서 '加以'는 '把它(그것을)'와 같은 뜻이다). 이런 오류는 자주 범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學生能够, 也應該努力研究(학생은 열심히 연구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문장은 '조동사+조동사+동사' 유형인데, 중국어에서는 이런 유형을 거의 쓰지 않는다. '學生應該努力研究, 這是辦得到的(학생은 반드시 열심히 연구해야 하며, 이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중국어이다.

'高得難以置信的程度(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정도이다)', 이 문장은 뒤에 '的程度(~의 정도)'를 덧붙일 수 없다.

'高到難以置信(믿기 어렵게 높다)', 이 문장에는 반드시 '的程度'를 덧붙여야 한다. '難以置信(믿기 어렵다)'은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번역문체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靠〈取巧〉以〈處世〉, 以〈新奇〉來〈號召〉', '以……爲', '靠……來'가 중국어 습관에 맞는 표현이므로, 앞 문장의 '以'는 '來'로, 뒷문장의 '來'는 '爲'로 바꿔서, '靠取巧來處世, 以新奇爲號召(교활한 수단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신기한 것으로 호소하다)'라고 해야 한다.

'來自鄉間的青年(시골에서 온 청년)', 이것은 중국어 문장유형이 아니다. '鄉下青年(시골 청년)'이라고 해야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one man said'를 '一個人說(한 사람이 말하다)'로 번역하면, 뭔가 부족

한 감이 있다. 이 문장에서는 앞 쪽에 '有'를 붙여야 한다. 현재 '有'라는 단어가 문제시 되고 있다. '有一天(어느 날)'에서 '有'가 있어야 할까? 서면어에서는 '一日'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구어체에서는 '有'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有天'은 그다지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고, 일반사람들은 모두 '有一天'으로 쓴다.

'一家', '有家', '有一家'는 모두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有一家(어느 집)'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幾年前(몇 년 전)', '幾天前(며칠 전)'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幾月前(몇 월 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비록 '數月前(수월 전)', '數年前(수년 전)'이 모두 좋은 중국어 표현이긴 하지만, 구어체로 '월(月)'을 얘기할 때는 '幾個月前(몇 개월 전)'이라고 말한다.

'兩片小肌肉(두 개의 작은 근육)'는 중국어 습관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兩小片肌肉(작은 두 개의 근육)'라고 해야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장 유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보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외국인이 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영어 단어를 중국어로 직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참 고 문 헌

박종한 지음, 『중국어 번역 테크닉』, 중국어문화원, 2000년

최정화 지음, 『최정화 교수의 통역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년

조설근/고악 지음, 안의운/김광렬이 옮김, 『홍루몽 2』, 삼성출판사, 1994년

백수진 지음,『중국어 번역 급소 찌르기』,다락원, 2002년

구섭우, 『당시삼백수』, 계명대학교, 1991년

주법고, 『중국언어학개론』, 탑출판사, 1989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